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32호



## '사제지간의 편지' 제3권

(중문판)

사제지간의 편지 영문판 제1권 출간에 이어 중문판 '사제지간의 편지' 3권도 발행되었다. 이 책은 칭하이 무상사와 제자 등 다른 수행자들과의 편지를 모아 편집한 것으로서 각 편지는 영적인 깨달음을 전해 주며, 수행상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스승님은 통찰력 있는 답변으로 내면의 의혹을 풀어주시고 수행 중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점을 바로잡아 주신다. 또 마음의 평정을 얻는 비법을 비롯해 처세요령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통해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은 어두운 밤 등대처럼 우리를 수행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제자에 대한 무상사의 지극한 보살핌과 무한한 은총은 글 속에서 너무나 역력하게 드러나 보이며, 스승님께 보낸 제자들의 편지 하나하나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의 기록이자 인증이라 할 수 있다. 이 편지를 통해 사제지간에 끊임없이 흐르는 한결같은 사랑은 매우 감동적이며, 또한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에서 도전에 부딪혔을 때, 직면할 용기와 강한 신심을 일깨워 줄 것이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smchbooks.com/eng/books.htm> (포모사:영어)

## 어울락판

###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재판 발행!)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는 칭하이 무상사의 세계 각 지에서의 강연과 인터뷰, 비공식 담화 중 정선된 내용을 골라 뽑은 인용문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다양한 영적 주제들을 심도있게 설명하고 있다. 태초부터 생사의 수수께끼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과제였으며 신실한 구도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제 이 모든 갈망과 의혹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지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생사의 뒷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곧 발견하여 쉽게 삶의 미로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인도자가 되어 줄 것이다.

관련 웹사이트 :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lac/publication/>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는 어울락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기타 언어로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해 주세요

Fax: 949-738-9992 (미국)

E-mail: [la\\_bookstore@yahoo.com](mailto:la_bookstore@yahoo.com)

## TA XUỐNG TÌM EM DƯỚI CỎI TRẦN



Sưu tập các trích dẫn và lời giảng của  
THANH HẢI VÔ THƯỢNG SƯ

## 앞표지 안 / 신간 안내

사계지간의 편지 3권/

어울락판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재판)

### 2 스승님의 말씀

일을 할수록 더욱 깨닫는다

### 4 다채로운 이벤트

독일/ 호주/ 캐나다/ 포모사/ 미국

### 12 감로법어

### 13 특집 보도

페루/ 아르헨티나/ 스웨덴/ 미국/ 인도네시아

### 15 이야기 세상

금옥양언/ 행복의 빛

### 18 제일연에서

'지혜, 사랑, 새 생활' 포모사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

### 19 스승님의 농담

때 늦은 소송/ 거꾸로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

뾰는 것이 없으면 겁날 게 없다

### 20/ 28 시

당신의 미소를 훔쳐도 되나요?/ 고향에 가고픈 갈말

### 21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법

### 26 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 27 영화 이야기

지혜도 귀중하지만 더욱 값진 것은 해탈

### 29 골라 뽑은 수행문답

일심불란(一心不亂)/ 여러분 자신이 스승이다/ 빛과 소리는 우리의 본질이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후광을 창조하라/ 수행과 수정의 힘

### 32 영혼의 고양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DVD/ MP3 CD

### 33 스승님이 해 주신 이야기

약속을 소중히 지키자

### 36 사계지간의 편지

깨달음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7 양서(良書) 입문

파동 에너지와 건강 혁명

### 39 감사 편지

새해 선물을 받은 한 어울락 단체의 감사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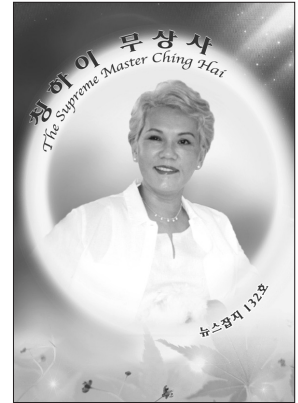
### 40 사랑의 실천

포모사/ 캐나다

### 44 관음 웹사이트

### 45 전 세계 연락처

### 뒷표지 무상 예술



작은 미물도 사랑하도록 마음을 훈련 시키세요. 중생을 살생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하이 무상사~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2호

출판일자 : 2002. 10. 26.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7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 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일을 할수록 더욱 깨닫는다

칭하이 무상사/ 1992. 4. 25./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243

우리가 일하는 건 모두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을 해야 두뇌가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도 즉시 처리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지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이 느립니다. 의도가 좋아도 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없으며, 즉각 반응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세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함으로써 주의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수록 경험이 생기므로 더욱 세심하게 되지요. 지식과 총명함은 경험에서 생기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수록 자연히 반응은 빨라지고 능력이 있게 되며, 스스로 훈련하면 이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됩니다.

내가 빨리 반응하고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8, 9살 무렵, 집에 하인도 서너 명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 물을 길어 오고 빨감을 줍고 장작을 썰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 요리도 하고 아버지를 위해 차도 끓이고, 목욕물도 데웠습니다. 직접 옷을 빨고 다림질하는 등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했으며, 하인들의 시중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시절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였으므로 빠른 훈련을 통해 빨리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천상에서 내려와 성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일이나 목공일 등 모든 걸 할 수 있고 전문가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수들은 나무를 옮겨 심는 데 이력이 나서 이젠 전문가보다 잘 합니다. 우리 산에 있던 온갖 나무들을 파서 옮겨 심었지요. 전문가들조차도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와, 이렇게 나무를 잘 옮기는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나무를 옮기려면 그냥 파내는 것 뿐만 아니라 뿌리도 묶어 줘야 하는데, 그들은 밧줄을 아주 멋지게 엮어 묶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묶진 못합니다. 그들에겐 열정도 없고 시간을 단축해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일찍 가고 싶어하는 마음 뿐이라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런 책임 의식이 없지요. 있다해도 그렇게 공들여 예쁘게 감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동수들이 하는 것처럼 뿌리를 감아야 뿌리의 흙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이 떨어져 나가지요. 그래서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옮겨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가지나 줄기가 너무 약했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흙이 떨어진 몇 그루만 잎이 약간 말랐을 뿐입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나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층 한층 멋지게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모든 걸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동수들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니 칭찬할 것도 없지요. 다만 외부 사람들의 영성한 방법보다는 우리 동수들이 하는 게 맞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동수들은 정말 전문가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지요. 또한 여기에 나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한 그루씩 심을 때마다 우리도 기뻐지고 센터도 아름다워집니다. 수만 명이 그 혜택을 누리고 덕분에 나 역시 행복해 하므로, 그래서 동수들이 그토록 공들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잘 하는 건 헌신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지요. 일을 빨리 끝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뇌를 움직여 방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 나는 동수에게 판자를 이용해서 나무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 편이 더 낮고 빠르고 힘이 덜 드니까요. 그런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면 자연히 반응도 빠를 것입니다. 내 두뇌도 여러분과 똑같은데, 왜 여러분은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두뇌를 비교분석해서 잘 살펴보면, 여러분 누구의 두뇌든 나와 똑같고 내부 구성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두뇌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망치고 아래로 가라앉길 원하면 계속 퇴보하여 게으른 느낌보가 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선택으로 신이나 업장, 그 어떤 것도 탓할 수 없습니다. 모두 스스로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탓입니다. 내 두뇌도 여러분의 두뇌와 똑같고 같은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것은 여러분보다 더 작고 무게도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보다 나아야 마땅하지요! 정말 제대로 계산해 보면 내가 더 불리한데, 무슨 변명거리를 찾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선택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두뇌를 움직여 일을 하도록 몰아 부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나는 많은 힘을 아낄 수 있고, 여러분을 혼내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많

은 불유쾌한 순간을 피할 수 있고 우리 사제지간의 감정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시간을 아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여러분과 차를 마시며 우주의 오묘한 지혜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돕는다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좀 공을 세웠을 뿐인 걸로 부산떨거나 흥분된 기운을 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일이 더 바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해서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각자의 일에 맞는 재능을 준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다음 생에 못 다 끝낸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이니까요.

그 어떤 일이든 우리 모두를 공부시키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고생스럽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공부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신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우리의 행실을 순화하고 주의력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야만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 일을 한다면, 어떤 일에서든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 주는 하나의 본보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을 하다가 문득 많은 도리를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개성과 인내심, 재능, 깨달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단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일종의 공포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 독일 소식

### 채식 요리 강습과 음력 설 만찬

[베를린] 2002년 2월에 주방장으로 일하는 한 동수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채식 요리를 홍보하는 무료 채식 요리 교실을 두 차례 열었다. 우리는 이 요리 강습회를 비디오로 녹화해 TV용으로 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유명한 여배우인 하이데마리 사저가 진행할 예정이다.

또 2월 10일과 11일, 베를린 동수들은 음력 설을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 센터에서 두 차례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겼다.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에는 독일,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출신 동수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포모사, 프랑스, 영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분위기는 더욱 흥겨웠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요리를 즐기는 한편,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시청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내면의 평온도 함께 누렸다. ☯



숙련된 주방장인 사형이 채식 요리를 시범보인다.



완성된 양배추말이



베를린 센터의 음력 설 만찬

## 호주 소식

### 입스위치 생활 박람회

[브리즈번] 브리즈번 센터는 2002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된 생활 박람회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우리 단체로서 처음 참여하는 행사로서 인구 13만 5천의 도시 입스위치에서 개최되었다. 우리가 매년 참가했던 건강과 조화 박람회와 성격이 비슷한 이 생활 박람회는 건강한 삶, 영성 정보 및 도서, 자연 치유법, 건강 마사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명상과 수행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 우리 부스는 이웃 전시 참가자와 방문객들 모두로부터 큰 주목을 끌었다. 쾌활하고 우호적인 지역 주민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존경스런 마음으로 받았고, 몇몇 어린이들도 호기심을 갖고 와서 견본책을 받아갔다.



생활 박람회 후, 입스위치 애드버타이저 신문사가 우리의 부스 활동을 보도하다.



이틀 간의 박람회를 끝낸 후, 동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박람회를 통해 스승님을 알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또 입스위치 애드버타이저 신문사에서 우리의 박람회 활동을 1면 기사로 보도해서 우리 기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스승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 ☯

## 진리를 나누는 큰 기쁨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최근 바이런 베이와 노던 리버스 센터 동수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우리의 모험적인 이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둬 참석한 사람들은 열렬한 관심을 보였으며, 방법법을 배운 후에도 떠날 줄을 몰랐다.

새로운 방편 수행자들의 감동적인 소감들은 더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얼굴을 빛내며 자신들의 체험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엔 결코 이런 명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고양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지요?”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 보시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스승님께서 공양을 받지 않으신다고 설명했다.

스승님의 사랑이 행사장 온 곳에 가득 차 있음을 입문자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느낌에 대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과 평화로운 모습을 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정말 행복하고 잊지 못할 하루였다. ☯



## 캐나다 소식

### 식탁에서부터 평화를 시작하자

#### 채식 요리교실

[온타리오 런던] 2002년 2월 16일, 캐나다 런던 센터는 채식이 보편화되지 않은 탓에 채식 식품 구입과 지속적인 채식 생활이 여의치 않은 많은 주민들의 요구로 공개 채식 요리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회장에서는 채식 요리 실습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동시에 전해졌다. 요리 강습회 소식이 알려지자 동수들은 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며 행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포스터와 전단지에는 요리 강습회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채식 요리 강습회 - 건강식과 영성 정보: 식탁에서부터 평화를 시작합시다!’가 인쇄되었다. 또한 전단지에는 몇 가지 채식 정보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도 실렸는데, 이것으로 채식에 대한 관념이 널리 퍼질 것으로 생각됐다.

강습회 날짜가 다가오자,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해왔다. 한 남자는 과거에 잠시 채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고기를 완전히 포기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강습을 통해 완전 채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요리 강습회는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딸과 함께 채식을 하는 한 여성은 12살 된 딸을 데려와도 되는지 물었는데 아이는 종종 그녀의 채식 요리 준비를 돕곤 했었다고 한다. 이곳에 이사온 지 얼마 안된 한 여성은 가입할 명상단체를 찾고 있던 중 우리가 채식 요리 강습뿐 아니라 수행 정보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강습회 당일, 행사장은 자리가 꽉 찼다. 사람들이 계속 도착해서 의자를 계속 추가했는데도 자리가 부족하였다. 참석자들은 한 사람씩 무료로 제공된 채식 관련 자료와 요리법, 견본책자와 전단지 등 수행 자료들을 받았다.

2시간의 강습 동안, 참가자들은 아시아, 멕시코 요리부터 서양 요리까지 세계 각지의 15가지 요리법을 골고루 배웠다. 우리는 채식을 하면서 단백질과 비타민-B를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채식고기, 다양한 두부 제품, 글루텐, 미소 된장, 해초류, 인도식 콩떡(tempe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와 간편한 요리법도 알려 줬다.

강습회에서는 채식 햄버거, 채식 바비큐 TVP 슬라이스, 그리고 계란을 넣지 않은 몇 가지 후식 등 많은 서양 기호 식품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참가자들이 강습을 매우 즐겼기 때문에 행사장은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채식 강습회가 끝난 후, 우리는 참가자들과 함께 동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다양한 채식 요리를 맛보았다. 한 부부는 예전에 두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채식 요리를 맛본 후 좋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들을 데려와 함께 배우고 싶다면서 이런 요리 강습회를 계속 열 것인지를 물었다. 이번 강습회에서 많은 것을 배운 참가자들은 매우 유쾌하고 흡족해했다.

참가자들이 채식 식사를 즐기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과 가르침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방법법을 신청했고, 일부 사람들은 주말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시간에 센터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동수들이 친구와 가족들에게 줄 남아 있는 요리법의 복사본을 요청했다. 이번 행사가 매우 유익하고,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채식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채식 요리 강습회가 사람들의 자비심을 키우고 진정한 신의 사랑을 깨닫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



열렬한 호응을 받은 요리 강습회에서 관심있는 참가자들이 동수들의 시범을 주시하고 있다.



강습후 맛있는 채식 요리를 맛보는 참가자들

## 음력 설 축제

[오타와] 음력 설 전날, 오타와 센터 동수들은 오타와 중국인들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오진 못했지만 우리 부스에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보고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요청했다. 그 중에는 즉석에서 스승님의 출판물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일부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한 노부인은



도서관에서 즉각 깨닫는 열쇠를 빌려 읽었다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한 동수의 소개를 듣고, 그녀는 즉시 방편법을 신청했다. 또 다른 숙녀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가끔씩 동의의 미소를 짓곤 했다. 그녀는 우리 센터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제야 안심하며 자리를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스승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가르침에 대해 더 알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집에서 읽을 뉴스잡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행사 중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승님의 축복과 신의 사랑, 그리고 중생들의 해탈에 대한 열망을 경험했다. 스승님의 은총과 신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고통속에서 분투하면서도 진리를 갈망하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지길 성심으로 기원했다.

오타와 동수들은 새해를 맞아 스승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전 세계 동수들의 빠른 수행 진보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

## 포모사 소식

### 중화 수륙 구조협회 성립대회

[타이베이] 장기간의 전문적인 훈련과 실제 연습을 마친 후, 2002년 2월 24일 포모사의 열성적인 동수들로 조직된 중화 수륙 구조협회가 1백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베이 앰배서더호텔에서 공식 발족하고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축하했다.

성립대회에 앞서, 샹시엔, 도라지, 나리 등 태풍속에서 펼친 수륙 구조대의 구조 모습과 신문 특집보도, 그리고 여러 재난 현장에서의 대원들의 TV 인터뷰 등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협회의 훈련, 상황과 실전 능력에 대해 한층 깊은 이해를 도왔다. 비디오는 포모사의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스승님의 관심과 격려로 끝을 맺어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구조협회의 회장 로사형은 개회사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격려에 힘입은 구조협회의 성립, 그 과정과 이념, 성취 목표에 대해 소개하면서 특히 각 대원들이 훈련 기간 동안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길 고대하면서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전심전력을 다해 체력 훈련과 전문 기술 등의 관련 훈련을 완수했다고 얘기했다. 회원들은 각자 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장비 등을 전액 부담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포모사 남부와 동부에 사는 동수들은 북부까지 장거리 여행을 여러 차례 하며 훈련을 받았는데 개인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희생하여 오직 사회에 봉사하려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불굴의 정신은 정말 놀라웠다.

로사형의 연설 후 사회자가 포모사 총동부와 내무부에서 온 축전을 낭독하



정부와 사회의 지원 아래, 중국 수륙 구조협회가 공식 창립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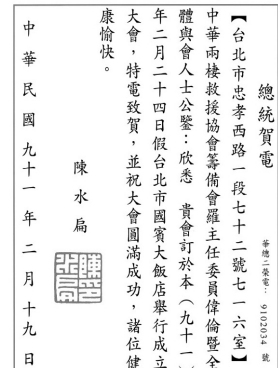


자 총통과 장관의 승인과 지원으로 회원들의 사기는 높아졌다. 이 외에 입법원 정·부원장과 국립 소방서장 그리고 많은 입법위원들도 편액을 보내 지원과 찬사를 보냈다.

구조협회는 포모사 여러 부문에 걸쳐 1백명이 넘는 고문을 두고 있다. 개회식에서 국립 대만대학의 위안 교수는 고문들을 대표한 연설에서 중화 수륙 구조협회는 포모사 정부의 재난 대책 법률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구조단체라고 말하면서 대원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와 박애 정신에 따라 명성을 좇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하며 구조활동 중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길 희망했다.

성립대회 협회 의제를 토의하고, 첫 번째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 후 막을 내렸다. 하지만 구조협회의 임무는 이제 시작이다. 대원들은 각자 마음 속 깊이 스승님의 격려와 지원, 국민들의 성원 아래 진실된 사랑과 희생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봉사를 행할 것을 다짐했다. ☯

## 紙用報電府統總



첸 수이벤 총통의 축전

중국 수륙 구조협회의 창립대회는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제45편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인터넷 시청 사이트 : <http://137.hichannel.com.tw> (중국어)

## 해변 청소와 타이난 환경보호 국장과의 인터뷰

[타이난] 2002년 1월 27일 타이난 센터 동수들은 거센 비바람을 무릅쓰고 타이난의 골든 코스트에서 예정대로 청소와,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타이난시 환경보호 국장 씨에 스지에씨도 개인적으로 현장을 찾았는데, 궂은 날씨에도 해변을 청소하는 우리 단체 회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열정과 환경보호 작업을 칭찬하며 씨에 국장은 이러한 일은 단지 환경보호국의 청소원들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동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민 단체의 환경보호 작업으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역설했다. 씨에 국장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번 골든 코스트 청소 활동에 함께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서로 함께 힘을 다하여 타이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를 선사할 수 있길 희망했다.

동수들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씨에 국장은 소박하게 사람들과 함께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 음식을 함께 즐겼다. ☯



거센 비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타이난의 골든 코스트를 청소하는 동수들



타이난시 환경 보호국의 씨에 스지에 국장이 해변 청소 작업후, 동수들과 함께 옥수수를 맛보다.



## 타이난 시장과의 단독 인터뷰

2002년 2월 1일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제작팀 동수들은 새로 선임된 쉬 티엔차이 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팀원들은 쉬 시장과 환경 보호의 생태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시장은 이 주제에 대한 사회의 성찰을 촉구하며 인간이 지구의 오염을 대부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심각해 자연으로선 생태계 순환으로 이를 소화, 제지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또 타이난 시 정부가 칭하이 무상사의 환경보호 활동 및 여타 공익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인정해 협회에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특히 해변 청소활동은 다른 단체들보다 철저하고도 정확히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도중 채식과 환경보호의 관계에 대해 묻자 쉬 시장은 조건과 생태계 보존 그리고 지구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채식이 굉장히 중요하며, 그러므로 환경보호는 채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쉬 티엔차이 타이난 시장이 무상사 TV 프로그램인 '예술과 영성'과 인터뷰하다.

쉬 티엔 차이 타이난 시장과 타이난시 환경 보호국의 씨에 스지에 국장과의 인터뷰는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제 41편에서 방송되었다  
관련 웹사이트 : <http://137.hichannel.com.tw> (중국어)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 스승님의 가르침이 새크라멘토에 전해지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매년 열리는 마틴 루터 킹 박람회가 2002년 1월 21일 캘리포니아주의 수도인 새크라멘토에서 열렸다. 캘리포니아 동수들은 부스를 마련해 스승님의 간행물과 예술 창작품을 전시했다.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부스에서 사형과 사저들은 새크라멘토 주민들에게 열심히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높은 이상을 담고 있어서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매우 신실했고, 또한 영성과 관련이 깊은 박람회의 성격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높이 고양되었다. 많은 구도자들과 가슴이 열린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 옆 부스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예전에 빛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수들에게서 평화스런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 사저에게 내면의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의미하는 바를 질문했다. 또 스승님의 잡지를 기쁘게 받아 들고 잠시 읽어본 후, 그녀는 스승님의 말씀이 마음에 든다면서 집에 돌아가서 차근차근 읽어 보겠다고 얘기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관음법문에 대한 자료를 기쁘게 받았고 열성적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스승님을 TV에서 보았으며 자료들을 받아 집에 가져갔다. 행사가 끝날 무렵, 가져온 영문 견본책자와 영문 뉴스잡지, 전단지가 모두 배포되어 결국 동수들은 뉴스잡지 합본호를 해체해 원하는 손님들에게 나눠 주었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를 치르느라 매우 힘들기도 했지만 또 즐거움도 컸다. 새크라멘토 사제들이 홍법 팀을 위해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서 동수들은 일하는 동안 맛있는 요리와 페스트리 등을 통해 기운을 보충할 수 있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 우리 부스 주위 곳곳에는 기쁨이 퍼져 나갔다. 스승님은 그 야말로 아름답고 완벽한 날을 안배해 주셨다! ☯

주 :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미국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다. 미국 각지에서는 그의 생일인 1월 15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 새해 경축 새크라멘토 박람회

2002년 2월 2일, 새크라멘토 주민들은 음력 설을 맞이해 박람회를 개최했다. 베트남과 중국의 전통 용춤 의식으로 시작된 행사는 이어서 다른 경축 활동과 노래, 춤 등의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돈구었다.

새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동수들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부스를 열어 많은 신실한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한 독일 신사가 지나가면서 스승님의 작품에 호기심을 보이자 한 사제가 그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마침내 이 독일 형제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귀국하면 독일의 지역 센터에 연락하기로 했다. 또한 전에 우리 단체와 연락하려다 닿지 않았던 베트남 노신사는 이번에 우리 부스를 발견하곤 매우 기뻐하며, 새크라멘토 연락인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즉시 방편법을 신청하고, 스승님의 견본책과 뉴스잡지 몇 권을 갖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

살아 있는 진정한 스승께 배울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도와 해탈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뜻깊은 일일 것이다! ☯



## 미국 뉴저지 소식

### 음력 설 선행사와 경축 행사

[뉴저지] 미국 북동부 지역 동수들은 뉴저지 센터에서 2002년 2월 9일과 10일 선이 행사를 열고 다가오는 음력 설을 경축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200명 이상의 동수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는데, 몇몇 캐나다 동수들은 12시간 이상



사자춤으로 시작된 뉴저지 센터에서의 음력 설 축제

운전해 와서 행사에 참가했다.

작업팀은 형형색색의 만세등, 새해 종이 오리불이기와 화분들로 센터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 동수들을 위해서는 그림 그리기와 수공예 대회를 마련했는데, 어린이들은 각자 예술적 재능을 표현하느라 열심이었다. 또한 스승님께 행복한 음력 설을 기원하며 동수들 모두가 서명한 아름다운 연하장을 보내 드렸다.

선이 끝난 둘째날 오후, 생동감 있는 한 쌍의 사자춤으로 경축 행사가 시작되었다. 북과 징소리가 우뢰와 같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더욱 아름다운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으로 이어진 공연들을 통해 스승님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축복을 표현했다. 막간에 퀴즈 대회가 열렸는데, 맞춘 사람은 빨간 봉투(돈이 든 중국의 전통적인 새해 선물)를 받을 수 있었다.

행사는 차(茶)모임에서 절정을 이뤘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천룡다관에 달여진 차는 향과 맛이 일품이어서 모두에게서 탄성이 쏟아졌다. 또 동수들과 손님들은 모두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빨간 봉투를 받았다. 스승님의 축복과 작업팀 동수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새해 선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



그림 그리기와 수공예 대회에서 뛰어난 작품을 낸 어린이들이 상을 받고 있다.

## 플로리다 소식

### 사라소타에 진리의 씨앗을 뿌리다

[사라소타] 2002년 1월 27일 일요일, 플로리다 동수들은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 그리고 방편법을 소개하기 위해 공개 비디오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행사였다.

뉴칼리지 플로리다 캠퍼스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술관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대학생층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구도자들을 매료시켰다. 참석자들은 우리 단체와 프로그램에 매우 감동하여 채식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했으며, 무료 채식 뷔페가 끝난 후 대략 3분의 2 가량의 참석자들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세미나를 마친 후 우리는 방편법 수행자들이 매주 단체명상 시간을 갖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 세미나를 놓쳤던 한 여성도 이곳 명상 시간에 와서 방편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방편법 수행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은 평생 속아서 지금 생에 돌아온 것이라 느꼈으며, 그래서 이번 생이 그녀의 마지막 생이라고 줄곧 다짐해 왔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매주 한차례 열리는 단체명상은 새로운 수행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기회가 되며, 명상은 물론이고 질의 응답, 스승님의 비디오 시청, 비디오 테이프와 경서 대여, 채식정보 등을 나눌 수가 있다. 지금까지 한 명 이상의 방편법 수행자가 관음법문에 입문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사라소타 지역에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신의 일에 일조할 수 있어 플로리다 동수들은 매우 행복해 했다. ☯



## 스승님의 음력 설 메시지

음력으로 말미 해를 맞은 첫날, 전 세계 동수들은 스승님으로부터 따뜻한 새해 메시지를 받고서 펄듯이 기뻐했다. 메시지 속에 따뜻하게 배어 있는 당신의 아이들인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다가올 새해에 대한 축복과 기대를 접하며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가장 축복 받은 아이들이라고 느껴졌다. 다음은 스승님의 새해 메시지 내용이다. ☯

### 음력 설 첫달의 첫째 날 (원문 영어)

사랑하는 신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사랑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가장 자비롭고 전능하신 신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다지고 수행과 세속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고아하고 드높은 진아를 기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모두 사랑합니다!

칭하이

*Happy New Year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  
Wishing you all dear  
Blessings and peace in God  
a very beautiful new year  
in all aspects, full of love,  
happiness and luck.  
Revering our Father in the most  
wonderful Almighty God, we  
start afresh in spiritual and  
worldly endeavor to serve  
Him - best love for all beings -  
I love you very much as  
always, for what you are  
and what you strive to  
remember - your noble  
and highest Self! -  
Chinghai*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장소** : 코스타리카 산호세  
**방송국** : 채널 54  
**프로그램** :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비디오 방영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2002년 3월 1일 개시)  
**언어** :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자막)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방송 시간표에 대해선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vents/tv.htm>

## 경축 칭하이 데이

### 페루 리마

1994년 2월 22일 미국 6개주는 존경하는 스승님께 세계 영적 지도자상을 공동 수여했다. 당시 전 세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스승님께 축하 전문을 보내 가장 필요한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스승님의 무아의 헌신적인 정신을 높이 기렸다. 2002년 칭하이 데이 몇주 전부터 리마 동수들은 칭하이 데이 8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리마 센터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파티를 개최해 입문자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이 사랑과 헌신이 담긴 노래와 춤, 시 낭송을 스승님께 바쳤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맛있는 채식 음식을 함께 즐겼다.

스승님의 비디오와 책을 통해 우리는 매일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접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영적 수확은 진정 비할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토록 위대한 깨달은 스승을 가까이 모시며 그의 끝없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칭하이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페루의 리마 센터 올림

###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스승님께,  
이 날을 맞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함과 순수한 사랑에 대해 깨닫게 된 그 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승님을 사랑하며,  
아르헨티나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 스웨덴

사랑하는 스승님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스승님,  
우리 중생을 구제하러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서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정 아름다운 칭하이 데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스웨덴 동수들 올림



## 미국 텍사스 휴스턴

사랑하는 스승님께,

가장 깊은 사랑과 최고의 감사로 2002년 청하이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스승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평온하시며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와 이 세상의 문제를 떠맡아 주신 스승님께 영원히 감사드리며, 스승님의 아름다운 가르침에 대한 훌륭한 모범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이 날을 통해 미국 6개주 정부의 표창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스승님, 완벽한 모범을 통해 고귀한 삶의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을 사랑하며,  
휴스턴 센터 동수 일동



## 미국 뉴욕과 뉴저지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이 의미 깊은 청하이 데이를 맞이해 저희들과 온 우주에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스승님께서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또한 저희의 성장을 돕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언제나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청하이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동수 일동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사랑하는 스승님께,

고요하고 평온하며 소박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나날이 즐거운 청하이 데이,  
축하드립니다.

사랑과 존경을 보내며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센터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승님께,

스승님은 당신을 갈망하던 우리 무수한 영혼을 구제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행복,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결코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하이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터





## 금옥양언(金玉良言)

쉬 차이사 사저 기록/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2001년 12월 플로리다 센터에서의 선사가 끝난 후, 우리들은 12월 30일 새해 전날 밤을 스승님의 처소에서 보낼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

그날 밤, 서재에서의 모임에서 스승님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시며 앞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길 희망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나쁘다’거나 ‘추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좋지 않다’라거나 ‘보기 좋지 않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하셨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않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다’, ‘보기 좋다’라는 긍정적인 단어도 들어가,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절반씩 사용되는 건 그나마 괜찮다고 하셨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현되고 어떤 생각이든 에너지가 형성되므로 그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스승님의 간략한 말씀 후, 몇몇 동수들은 스승님께 자신들의 의견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으며, 일부 동수들은 주변에서 발생한 실화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대륙에서 온 한 동수는 고향인 산둥 지방에 한 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사람을 보면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가 동수인지 아닌지를 말한다고 했다. 동수인 경우엔 “이 사람은 불보살이다”라고 하고 동수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불보살이 아니야”라고 말한다고 한다. 또 그 지역의 한 동수에게는 대보살이라고 불렀다. 한번은 동수들이 벽에 걸린 스승님의 법상을 가리키며 묻자, 아이는 곧 바로 “그분은 아주 아주 위대한 보살이에요”라고 말했다. 자신의 수행이 높다고 생각하던 한 비입문자가 “나는 보살이니?”라고 묻자, “당신은 보살이 아니에요”라고 답해

서 그는 대단히 실망했다. 그러나 나중에 입문하고 나서 물어보러 왔을 때 “당신은 보살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펴듯이 기뻐했다. 이 얘기를 들으신 스승님은 “어린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한 동수는 ‘금옥양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며 자신의 입은 매우 영험해서 어렸을 때부터 감히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번은 시후에 열린 망고들을 보고 먹고 싶었지만, 시후 장주들에게 모든 것은 신의 것이니 누구든 망고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만약 망고가 내 손에 떨어진다면 훔친 것이 아니니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망고 하나가 떨어져 손으로 굴러 들어왔고, 그는 망고를 먹을 수 있었다. 또 한번은 아이를 데리고 산에 놀러 갔을 때 홍시가 가득 열린 것을 보고는, “이 감들은 신의 것이니까 떨어지면 먹어도 괜찮아.”라고 말했다. 그러자 즉시 몇 개의 감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아이와 함께 감을 줏고 보니 모두 멀쩡해서 먹을 수 있었다. 스승님은 이 이야기에 “당신은 좋은 생각을 과일을 훔치는 데만 사용하는군요”라고 말씀하셨다.

사제간의 유머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함께 자리했던 동수들에게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스승님 처소에서 보낸 아름다운 시간은 즐거운 웃음소리와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덧 지나갔고, 밤 12시가 넘자 스승님은 우리를 달콤한 꿈나라로 데려갈 한없는 사랑을 남기신 채 서재를 떠나셨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동수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밤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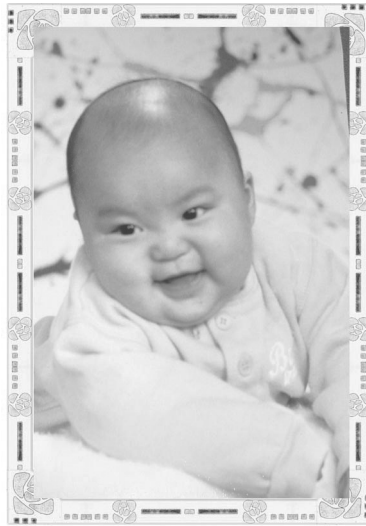
## 행복의 빛

응 우엔 사저/ 미국 오리건 (원문 영어)

5년 전 나는 예쁘고 통통한 남자 아이가 내게 와 껴안으며 “안녕, 엄마, 제 이름은 쿡하이에요”라고 소개하는 꿈을 꾸곤 적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미안하구나, 엄마는 너무 바빠 너를 키울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는 계속 내 주위에서 놀았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나는 그 쾌활한 작은 소년이 매우 그리워졌고, 꿈에서 계속 보기를 원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동수인 나의 동서가 임신을 했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남자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동서에게 그 아이가 분명히 내가 꿈에서 본 행복해 보이는 얼굴에 통통한 뺨을 가진 아이일 거라며 머리카락이 없는 동자승처럼 생겼다고 말해 주었지만, 동서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애는 내 생일에 태어났고, ‘쿡하이(행복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생김새도 내가 꿈에서 본 그대로였다. 또 아이의 부모들이 일 관계로 낮에는 내가 그를 돌보게 되었다.

쿡하이는 지금 4살 반이 되었다. 그는 이름처럼 행복한 소년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부부를 ‘엄마, 아빠’로 부르며 우리를 통해 스승님을 알고 심지어 입문에 대해서도 묻곤 한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스승님을 처음 뵈고서는 왜 두



명의 사촌들은 입문증이 있는데 자신은 없는지 매우 궁금해했다. 우리가 상황을 설명해주자 그는 반입문을 하기까지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1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쿡하이는 다음 날 우리가 플로리다로 간다는 것을 알고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기 아버지에게 스승님께 드릴 글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메시지는 “스승님, 사랑해요!”

라는 글이었다. 이제 4살 반인 그 아이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면 스승님과 신에 대해 종종 묻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스승님의 비디오와 불찬 테이프를 보고 들으라고 격려해 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 스승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쿡하이는 동수들과 있을 때는 매우 순수하고 지혜롭다. 하루는 그에게 “왜 채식을 하니?”라고 묻자 그는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채식을 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개와 고양이도 사랑해야 해요.”라고 대답했다.

아이의 육체와 영혼을 잘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승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모 스스로 아이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법을 포함해 우리 생활 모든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

# ‘ 지혜, 사랑, 새 생활 ’

## 포모사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 그룹 보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2002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이 대만 세계 무역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천 수이벤 총통도 개막식을 이끌었다. 주제 및 출판물 특색에 따라 국제관, 아동도서관, 만화관, 미래출판 및 종합 도서관 등 5개 구역으로 분류되었고, 국가주제관, 인문과학관, 외국어로 번역된 중국도서관, 황금삼발이상 및 소태양상 전시실 등 특별전시장도 4곳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제도서전에선 강연과 세미나, 저자 사인회, 영화 상영화 등 100여 개에 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어 수십만 명이 참관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신청해 ‘영성의 만남-지혜, 사랑, 새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 동수들의 정성스런 장식으로 부스는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선보였는데, 스승님의 각종 출판물 전시 외에도 스승님의 최근 만세등도 몇 점 걸어 놓았으며, 만세등의 빛과 부스 양 옆에 전시된 빛나는 스승님의 그림들은 멋진 분위기를 창출해냈다. 양쪽에 설치된 TV에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여 전시장에는 스승님의 사랑이 충만했다. 복도 쪽에는 컴퓨터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출판 간행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부스가 전시장 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이 데려온 친구들과 인연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

다. 수백 점의 전시 부스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스에서 상영한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공연은 가장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으며, 수없이 많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끌었다. 홍콩의 기자들도 찾아와 우리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전시회는 2월 24일 오후 6시에 끝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에게는 일을 통해 더없이 기쁜 경험을 했으며, 모두들 스승님의 사랑의 씨앗을 인연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해 했다.

### 특별 인터뷰

국제 도서전 닷새째 되던 토요일은, 주말인데다 설 연휴여서 즐거



운 분위기가 행사장에 곳곳에서 느껴졌다. 참관객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가운데 각 부스에선 다채로운 판촉 행사가 열려 사람들을 끌었



다.

주(駐) 타이베이 스위스 무역사 무처의 요스트 피어 대표도 우리 부스를 찾아왔다. 편안한 옷차림을 한 피어씨는 우리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철학적인 사람이었으며, 과학 실증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동양 정





신과학이 서양의 물질화된 삶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 불확실의 시대에서 이 두가지 측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선 수행을 공부해 4년째 명상하고 있었는데, 스승님을 매우 존경해 스승님의 홍법 활동에도 수차례 참석했었다. 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회원들이 굉장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명상을 열심히 하는 것뿐 아니라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 동수들과 같다면 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씨는 비록 특정한 스승을 따르고 있진 않았지만, 그는 항상 내면의 최고의 주인을 찾아야 하며 그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자신을 일깨우고 있었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은 스승님

의 신년 메시지를 생각나게 했다. 스승님은 “나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사랑합니다. 또한 고귀하고 최고의 자아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여러분을 항상 사랑합니다”라고 하셨다. 우리는 피어씨를 통해 우리에게 신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으며, 우리는 그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뿐이란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포모사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요청하자, 피어씨는 말했다.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자아를 찾는데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 레코드사 사장 리우 위시엔씨는 스승님의 음악 CD들을 듣고 나서 그 중에서도 스승님의 창작곡을 좋아했다. 그는 그 음악 선율을 통하여 스승님의 사랑과 세계평화에 대한 기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공연 테이프를 본 후, 사랑하는 스승님의 이상이 세계 유명 음악가들의 음악을 통해 표현된 매우 환상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하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국제 러시아 고전문학 삽화 수상자인 러시아 화가 체루스킨 키릴씨는 예술가의 창작에 깃든 내면적인



의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우리 부스를 방문해 예술가들은 그들의 창작작품을 대중과의 소통 수단으로 이용하며, 그들이 세상에 표현한 작품들은 모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으로 때로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해도 그 작품들은 우리의 삶에 미묘하고도 깊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 외 러시아 DIANT사의 아트 디렉터인 나탈리아 V. 티코노바씨는 포모사의 많은 사람들이 채식과 환경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정 자연을 사랑하려면, 채식과 영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동수들은 이미 홀(☯) 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에서의 자세한 활동과 특별 인터뷰는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44편에 보도되었으며,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그 동영상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137.hichannel.com.tw> (중국어)

## 때 늦은 소송

칭하이 무상사/ 2001. 6. 9.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자신을 고릴라라고 부른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지요. “당신 친구가 고릴라라고 부른 게 언제지요?” 그러자 남자는 “10년 전 일입니다.” “그럼 왜 10년 전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야 그를 고소하는 거죠?” “어제 동물원에 가서 처음으로 고릴라를 봤단 말입니다!” “???...”



## 거꾸로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

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노인이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차에 있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아 보니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존, 운전 중 미안하지만, 글썄 라디오를 들어보니 지금 고속도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차를 몰고 있는 미친 남자가 있다는군요. 그러니 제발 조심하세요, 알았지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 알았어!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데? 수백 명은 되겠는 걸!” “???...”



## 뵈는 것이 없으면 겁날 게 없다!

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운전을 배우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운전할 때마다 너무나도 긴장이 되어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달려올 때마다 놀라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2차선일 때는 더욱 더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아주 침착해져서 이제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와도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강사가 그녀의 운전기술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와, 많이 좋아졌군요! 잘됐습니다. 이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는군요.” 그러자 그 숙녀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비법을 알았거든요.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가 보이면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아무 것도 안 보여서 괜찮아요!” “???...”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농담을 원문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32/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2/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32/jk1.htm> (미국)

# 당신의 미소를 흠쳐도 되나요?

딜립 고탐 사형, 네팔 카트만두(원문 영어)

잘 가요, 일월  
반가워요, 이월  
일새마다 앓은 눈을  
바람이 살며시 날려보내면  
자연은 다시 한 번 새로워지고,  
나는 과거를 잊고  
찬란한 미래로 내딛어요.

우리는 오월에 다 같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은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오, 나의 소중한 스승이시여!  
난 가슴속에  
당신에 대한 달콤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미움, 분노, 오욕  
이 모든 것들이  
어젯밤의 빗방울에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은  
온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별들은 반짝이고  
달님이 미소를 보내는데,  
스승님을 생각할 때면  
자연은 사랑으로 흠뻑 젖지요.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새들은 햇볕에 몸을 녹이고  
다람쥐는 땅 위를 노는데  
오, 나의 소중한 스승이시여!  
저는 몰래 당신의 미소를 흠쳐  
가슴속 깊이 간직하지요 .....

사랑하는 스승님께 사랑과 축복을 보내며 .....





##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법

칭하이 무상사/ 1989. 6. 3. 코스타리카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80

오늘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마야의 힘이냐 부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라고 묻기에 “그것도 신으로부터 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 마야의 힘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신은 어째서 부정적인 힘을 창조했을까요?”

### 부정적인 힘의 긍정적인 면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힘을 유용한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하므로, 부정적인 힘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거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감전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계율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돈에 지배되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돈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만일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우리는 돈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돈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고, 돈을 얻기 위해 많은 나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 때는 돈이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돈은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전기는 양극이 있는데, 음극과 양극이 연결되어야만 전류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힘으로, 신의 힘이기도 합니다. 자비, 사랑, 보살핌, 축복 등이 모두 긍정적인 힘이지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힘으로 이른바 마야의 힘입니다. 마야의 힘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묶어 사람들의 탐진치(貪嗔癡)를 시험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지혜와 힘도 시험합니다. 원래 이 힘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변합니다.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모하메드,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모든 깨달은 스승들은 이 부정적인 힘, 왼쪽의 힘을 극복해서 그 부정적인 힘을 긍정적인 힘과 합일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내려 왔습니다. 중국어로 이것을 ‘음양합일(陰陽合一)’이라고 하는데, 음과 양이 모두 있어야 좋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음이나 양, 어느 한쪽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음이 너무 많고 양이 너무 적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주권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잎새처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 대로 탐진치와 욕망을 따른다면, 우리는 음을 따라 부정적인 힘을 따르게 됩니다. 깨달은 스승이라면 그 때 양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충고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



다면 우리는 너무 왼쪽에 치우쳐 음의 기운이 많아져 영원히 거기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 깨달은 스승은 배관,전기공과 같다

양은 무엇일까요? 그건 긍정적인 힘, 자비, 사랑의 힘이며, 깨달음을 주고 빛이 나며 희열에 차고 축복의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옵니다. 하지만 음의 힘은 이 세상, 혹은 ‘아래’에서 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고, 하나는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천국, 혹은 천사가 머무는 곳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는 법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에게 고통만 떠오를 뿐 행복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은 아주 적고, 고통스런 시간은 아주 많아서 행복에 대해선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 일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두세 그릇의 밥을 먹을 뿐입니다. 그 밥을 먹는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 10시간과 맞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서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책임이 생겼는지 잊습니다. 결혼 후 20년, 30년, 40년 동안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생겨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가 20살, 25살, 30살이 되도록 돌봐야 하며, 그리고 나서도 자식이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또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행복한 순간은 아주 드뭅니다. 너무도 많은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겨우 약간의 행복을 얻을 수 있지요. (대중 박수)

왜 우리는 양을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불행하고 일에 지치고 즐거운 순간이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입문할 때 내가 양의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겠습니다. 이는 하나는 찬물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더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두 개의 수도꼭지를 함께 틀어 찬물과 더운 물이 섞이면 우리는 목욕을 해도 감기에 걸리지도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도 사라지고 힘과 기력이 생겨, 내일 닥칠 속세의 번뇌와 일, 책임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매일 찬물로 목욕한다면,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적지 않은 고통과 번뇌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찬물로 목욕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정말 더운 물로 목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운 물이 나오는 다른 수도꼭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수 수도꼭지를 냉수 수도꼭지와 함께 튼다면, 여러분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병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병을 앓고 있더라도 더 이상 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꼭지는 현재 잠겨 있습니다. 수도꼭지도 있고 물도 파이프에 차 있지만 수도꼭지 안에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그것을 고치게 한다면 꼭지를 틀고 바로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입문이며, 나는 배관공이나 전기 기술자와 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전기선을 연결해 주면 전기가 생기고, 수도꼭지를 고치면 물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이 매일 찬물로 목욕해서 아프거나 병이 낫지 않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 수행은 밟지는 장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에요! 찬물로 목욕하는 게 더 경제적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의사나 약사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당신에게 입문하고 싶지 않아요. 윤회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 사바세계의 고통도 참을 만하고, 천국에 가고 싶지도 않



아요. 천국에 가려면 채식을 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 골치아파요! 고기도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맛있으니까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그토록 계율이 많다니 정말 골치 아파요. 당신에게 입문하는 대가가 너무 크니, 그만 두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불에 들어갈 때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계율을 지키며 고기, 생선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지요.

“입문하고 하루 2시간 반을 명상해야 하다니, 세상에! 그 2시간 동안 이 세상을 즐기는 게 낫겠어요. 전 지금 살아가는 현재만 알 뿐, 그 누가 미래를 알겠어요?” 아니,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으며, 즐거웠던 순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즐기는 고기나 생선, 술같은 것들은 나중에 육체적인 불편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육식하는 사람과 애주가들로 가득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병에 걸리는 일이 드뭅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 그 인과는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렇지만 친척이나 친구 등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지요.

우리가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하고 입문하고 관음법문을 수행하거나 혹은 부부가 함께 수행한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을 희생해서 함께 명상하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그 편이 훨씬 수지 맞지 않나요? 절대 밀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수행하면 이로움만이 있을 뿐 손해는 없습니다.

음양의 법칙이란, 우리에게 음이 너무 많으면 이음의 차원이 빠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음을 심으면 음이 나오고, 양을 심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둘 다를 심어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부정과 긍정이 함께 있게 되고 우리는 균형을 이룬 존재, 즉 부처가 됩니다. 부처는 양만을 갖고 있음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교의 상징에는, 음과 양이 절반씩 차지하고 양에는 음

의 점이 있고, 음에는 양의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도인(道人), 도를 얻은 성인은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양이거나, 완전히 음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완전히 양만을 가지고 있다면, 중생들의 음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해 중생에게 너그러울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너무 음에 치우쳐 있다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무명속에 빠져, 깨닫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힘, 생명을 구하는 힘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은 본래 자비롭다(性本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엽매이고 엽장에 둘러싸여 그 너머의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 만일 양의 에너지를 풀어놓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수리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입문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승은 동수,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그러면 자비와 사랑의 힘이 매일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신’이라 부르며, 이 자비와 사랑의 힘을 아는 것이 곧 신을 아는 것입니다.

## 수행자의 자장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어디로 갈까요? 지옥은 존재할까요? 천국은 있을까요? 대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업장이 만들어 낸 것으로, 우리 자신의 어두운 생각,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일종의 자장, 기운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어떤것도 사라지지 않으며, 모두가 우주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우리의 친구의는 일종의 특별한 분위기로 변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살아 있는 동



안 우리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그 사람의 자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 자장은 그의 또 다른 신체인 영체(靈體) 주변을 둘러쌉니다. 아주 위대하고 힘이 있는 수행자인 경우라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야 겨우 천천히 사라져 다른 차원으로 옮겨 가거나 혹은 다른 상황,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아주 많은 것을 태우는 커다란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연기가 배출되어 검은 구름을 형성할 것이며, 이 검은 구름은 곧바로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많은 지대의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에게 좋지 않지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산소가 부족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기운도 윤택하거나 불쾌한 분위기의 연기를 배출하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낸 이런 분위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지요. 담배를 피우면 당사자의 몸을 해치고, 또 주변에서 그 연기를 마시는 사람들도 불편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친구의를 잘 돌보면서 또 한편으론 우리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행동, 말, 나쁜 생각을 자제합니다. 한편으로 위로부터 양기(陽氣), 신의 에너지를 흡수해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점점 총명해지며, 점점 더 유형, 무형의 신통이 생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말한 이 신통은 주문을 외며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의 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신통으로서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레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느껴지지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어도 때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향기를 뿜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꽃은 자연스레 향기를 뿜지요.

우리 수행자들의 친구의가 순수해질수록 지혜와

힘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며, 우리는 점점 더 위대해져 다른 사람을 돕는 깨끗한 자장을 자연스럽게 내뿜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어둡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업장이 무거운 그런 자장은 내뿜지 않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중병이 걸린 한 여인은 남몰래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문을 외는 어떤 신통을 썼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 누가 그의 힘을 흠쳐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지요. “방금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는가?” 그러자 그 여인이 겁에 질려 일어나 죄를 뉘우쳤습니다. “제가 방금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지금 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괜찮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통력입니다. 예수는 그 어떤 신통도 일부러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신통이었으므로 그와 관계가 있거나 그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 내면의 소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머거리를 다시 듣게 한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귀로써 들을 수 있게 된 것과는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내가 알기로, 이 ‘듣다’는 ‘내면을 듣다’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를 지닌 나의 제자들이 내면의 부처와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귀가 정상이지만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세속의 소리만을 들을 뿐, 신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머거리인 셈입니다. 그런 귀머거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는 비록 이 세상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듣지는 못하지만 최상의 음류, 가장 아름답고 가





장 즐겁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도움을 주고 생명을 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바깥의 시비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부 세상의 소리는 별 게 아닙니다. 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는 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근(耳根)을 열어줄 스승을 찾아 우리의 이근을 열어 달라고 해야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꼭 최상의 소리라곤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미 이 소리를 듣거나 빛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스승은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이 한계를 돌파하도록 하고 우리의 경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 중에는 전생에 수행을 해서 이생에서도 소리를 듣고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스승이 없이는 최상의 경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달은 스승은 최고의 경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최고의 경지까지 우리를 데려 갈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힘을 열다

**질문 :** 스승님, 긍정적인 힘에 대한 스승님의 설명이 쉽게 이해되지만, 이 긍정적인 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긴 했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스승님: 긍정적인 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토록 바쁘게 일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그 힘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힘을 열고 사용하면 우리는 아주 즐거워집니다. 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갑자기 동정심이 일어나 돈을 주거나 잠시 돌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지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힘이 그

를 돕고 여러분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아플 때 사람들은 당신이 도왔던 그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100달러를 주었다면 후에 여러분이 아플 때 사람들은 만 달러를 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아픈 사람을 자주 도왔다면 여러분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정적인 힘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힘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전지전능한 힘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틀도록 도와줄 살아 있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수도꼭지는 고장이 나서 매일 한 방울 한 방울씩 얻을 수 있을 뿐인데, 스승이 고쳐주기만 하면 트는 즉시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많은 물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도꼭지는 우리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며, 수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종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은 팔팔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힘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문 후에는 매일 신 혹은 불성, 성인들과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 관세음보살을 뵙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직접 질문도 할 수 있고, 무슨 요구든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힘과 연결되어 있고 쓰고 남을 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이 힘이 우리의 영혼을 돌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일상 생활을 돌봐 줘서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질 것입니다. 관음법문은 온갖 병을 치유하고 어리석음을 치유하며 탐진치를 치유합니다. 이 힘은 지옥, 아귀, 축생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유일한 길은 천국, 불국토로 가는 길 뿐이며, 이젠 더 이상 지옥에 가거나 다시 인간으로 와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원한다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으로, 업장 때문에 끌려 내려와 윤회, 고통, 무지를 겪는 사람들과



는 경우가 다릅니다.

긍정적인 힘은 불가사의한 놀라운 힘입니다. 그 힘이 열리기 전에는 큰 고통과 외로움을 겪지만, 일단이 긍정적인 힘이 열리고 나면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위대해지고 힘이 있어지며 더욱 더 만족스럽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 어떤것도 부족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도 않게 되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힘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입문할 때 그 힘이 열리면 여러분은 매일 이해하게 되어 이 긍정적인 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이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썸이지요. 그러나 돈이 있을 때는 우리가 빵과 두부, 또는 글루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웃음) 결혼도 할 수 있지요.

## 부정적인 힘도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질문 :** 스승님, 방금 긍정적인 힘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우리가 부정적인 힘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때 부정적인 힘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돈은 유혹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살

인하게 만들고,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형제 자매를 갈라서게 하고, 가정의 다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아 탐관오리가 되게 하며, 선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돈은 있을수록 좋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돈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더욱 탐욕스러워지겠지만,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돈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관대하게 돈을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 과부를 돕거나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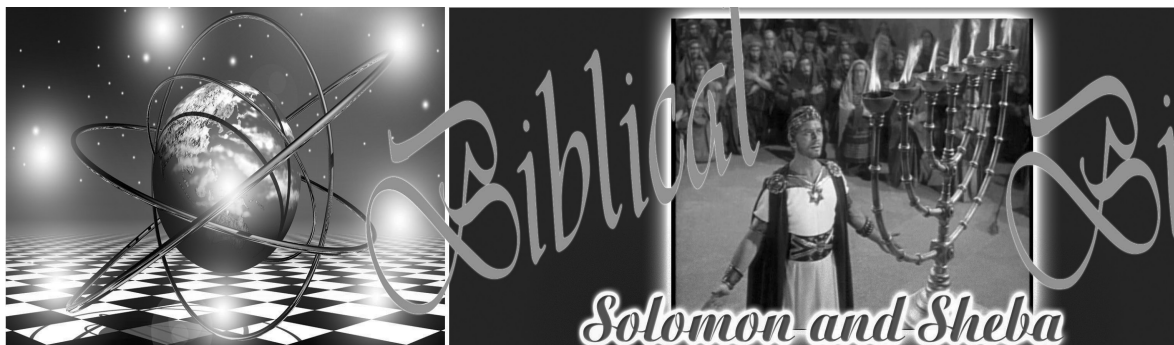
부정적인 힘은 전기의 음극과 같습니다. 음극이 없으면 전구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은 실제로 하나의 에너지로 각자의 일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힘이 나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이 있어야만 이 부정적인 힘을 어떻게 이용해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면,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며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힘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나쁜 일에 사용하지요. 예를 들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주 친절할 사람을 알게 되면 그는 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 돈을 빌려 술을 마시고 도박 같은 것을 합니다. 반대로 깨달은 사람의 경우는 부정적인 힘조차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1989. 6. 3. 코스타리카 (원문 중국어)

일단 수행을 시작하면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육신의 안락에만 신경써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더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고귀한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남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참된 목표입니다.



## 지혜도 귀중하지만 더욱 값진 것은 해탈 [솔로몬과 시바 여왕]을 보고

양 통인 사저 / 포모사 지롱

제9대 천상의 보석에서 스승님은 아름다운 사파이어로 둘러 싸인 다윗의 별 양식의 ‘솔로몬의 지혜’를 디자인하셨다. 이번 작품들을 보며 순간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떠올랐는데, 이 영화는 참으로 의미 깊은 영화였다.



박무역에 해 사람들을 경악시키며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또한 대상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부족들의 불만을 샀다. 서아라비아 반도의 통치자로 알려진 시바 여왕은 그 중 가장 큰 피해자였다. 한번은, 그녀가 솔로

몬 왕과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많은 양의 향료와 금, 값진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을 찾았다. 동시에 그녀는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했으나, 그는 이 질문들에 가볍게 답변했다. 시바 여왕은 왕의 위대한 지혜에 감복해 지극히 존경하게 되었고, 또한 솔로몬이 섬기는 신을 매우 찬탄하였다. 원래 솔로몬 왕은 지혜롭고 관대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헌신적으로 신을 섬겼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는데, 성서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왕비와 700명의 궁녀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고 부인들이 갖고 들어온 이민족의 신들과 의식에 몰들어 점차 신에 대한 헌신과 맹세를 잊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해 안팎으로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신이 그를

몬 왕과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많은 양의 향료와 금, 값진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을 찾았다. 동시에 그녀는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했으나, 그는 이 질문들에 가볍게 답변했다. 시바 여왕은 왕의 위대한 지혜에 감복해 지극히 존경하게 되었고, 또한 솔로몬이 섬기는 신을 매우 찬탄하였다.

원래 솔로몬 왕은 지혜롭고 관대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헌신적으로 신을 섬겼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는데, 성서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왕비와 700명의 궁녀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고 부인들이 갖고 들어온 이민족의 신들과 의식에 몰들어 점차 신에 대한 헌신과 맹세를 잊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해 안팎으로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신이 그를




떠났다고 믿는 솔로몬의 장군들과 국민들로 인해 나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일깨움을 준다. 온갖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순간 깨어있지 않다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쉽사리 외부의 영향에 휩쓸려 정도(正道)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때로 나는 솔로몬 왕처럼 실수를 하는 나 자신이 보이곤 한다. 또한 나 자신의 수행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명, 핑계를 찾거나 모르는 체하며 그 일을 계속하기도 한다. 그리고선 마음이 즐겁지 않고 양심에 걸려 결국에는 스승님께 참회하면서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스승님의 집을 가중시켰다. 이 영화 속에 나타난 상황처럼 사실 신이 누군가를 벌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인간이 신에게서 벗어나길 선택하고 신의 사랑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겐 최대의 형벌인 셈이다.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 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허다하지만, 그 무엇도 천국의 아름다움에는 비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간 몸이 덧없는 존재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영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눈앞의 사물에 미혹되지 않고, 또 진정 가야 할 길을 잊지 말아야겠다. 

#### 참고

1. 솔로몬 왕의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는 구약성서 열왕기 1장 11절을 참조할 것
2. 시바는 고대 서아비비아의 부족 이름이라고 추정됨



시

## 고향에 가고픈 갈망

피닉스 사저/ 오스트리아(원문 영어)

세상이 내게 던져보내는 것은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때론 부당하고 고통과 오해를 낳습니다  
나 홀로 슬픔에 잠겨  
신께 울부짖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오,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이여,  
위로를 주는 선율이 없다면,  
내 영혼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으리!

오, 다정하신 우주의 스승이시여,  
만물을 감싸 안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었을 것을!  
이생과 수많은 전생에서,  
거대한 음모와 부서진 환상속에서,  
무지와 갈망속에서  
바라는 것 있었다면,  
다정한 자비의 천사를 찾는것,  
당신을 따라 고향으로 가는 것 뿐 .....





## 일심불란(一心不亂)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6.-18. / 미국 LA 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39

**질문 :**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테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불란’의 상태로 매사에 주의집중해 신경써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심불란에 대해 신경 쓸 필요없이 단지 하루에 2시간 반 명상하고 계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스승님 :** 주의를 집중한 것도 수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온 신경을 모아 집중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공장에서 쉬없이 돌아가는 기계를 작동하는 중이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불란’인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겠지요.

이건 말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지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면, 컴퓨터나 이메일,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지점에 손가락을 움직여야 정보들을 읽을 수 있으니, 우리는 늘 주의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 성심껏 하고, 혼신을 기울여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집중이지요. 그외 오불을 외우는 것도 집중하게 만들므로,

역시 집중입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완전 채식인지 주의하는 겁니다. 또 집중하기 때문에 가족과 일에 책임을 느끼는 것이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거나 남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집중입니다. 단지 내가 너무 많은 방법으로 분류하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는 이름과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남자니까요. 하지만 난 좀 더 상식이 있지요. (대중 웃음과 박수) 그는 많은 것에 이름을 붙였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전부 외워야 한다면 수행은 언제 하겠습니까? 사고(四苦), 사성제(四聖諦), 오성행(五聖行), 팔정도(八正道), 12인연(十二因緣), 이십팔 뒤뒤, 오십음마(五十陰魔), 백팔 뒤뒤 등등이 있는데, 그는 정말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애다 모두 이름도 붙였지요. 사성제(四聖諦), 팔대고(八大苦), 칠보리분(七菩提分), 심지어 태어날때도 일곱 걸음을 걸었지요. 믿어지나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내 가르침은 좀 단순하죠. 그렇지만 오계 뿐인데도 여러분은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팔정도, 사고, 십이무엇 등 거기다 이름 붙이고 ‘일심불란’의 종류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간단하지요. (대중 박수) ☯



## 여러분 자신이 스승이다

**질문 :** 황금시대로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입문한 동수들 중 상당수가 5세계로 도약해 스승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스승님께 부탁드리건데 5세계


로 데려가 주십시오. 전 여기에 있는데 진력이 났거든요.

**스승님 :** 당신이 바라는것 만큼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길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당신은 이미 스승입니다. 만약 황금시대가 되어 여러분이 높아져 스승이 많아진다면,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군요. 운명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스승인 셈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깐요. 거기에 '5세계' 나 '4세계' 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불보살의 소관이니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지가 낮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생각을 던져 버리세요. 의기소침하거나 지쳤다고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던져 버리세요. 그것이 쉽진 않지만,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경지가 낮다

거나 업장에 고개 숙이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5세계에 있길 바랄 순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어느 경지에 갈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지 내가 아닙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설령 내가 “좋아요, 5세계로 가세요. 내가 축복해 주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기소침하며 비관적인데 어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음에게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이르십시오.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느낄지, 어느 경지에 있을 건지 지시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자신이 스승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승입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 빛과 소리는 우리의 본질이다

**질문 : 빛과 소리를 수행하는 것이 왜 깨닫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승님: 그게 최고이니깐요. 설명이 더 필요 없습니다.

**질문 : 좀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설명할수록 내겐 더욱 굳어지기처럼 느껴 집니다. 사실 태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양은 그냥 태양이지요. 빛과 소리는 우리 자신, 우리 본질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진아로 되돌아 가는 것 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외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물 속에서 있는 게 더 좋을까요? 물고기이니깐요! 그 밖에 뭘 더 설명해 달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이 수행을 통해 기분이 좋다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다 돌아오겠지요. 이 방법은 아는 한 유일하며, 최고의 법문입니다.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 요한이 트럼펫 소리를 듣고 하느님이 천둥소리로 나타나셨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본질 안에 있다면 그게 최상인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불교경전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코란에서도 항상 빛과 소리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자들도 우리가 빛과 소리이며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진아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질문 :** 그러니 우리 자신의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군요?

**스승님:** 자신의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빛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소리예요. 당신은 온 우주를 창조한 진동이

며, 당신이 이 우주를 주재하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깨달을수록 더욱 힘이 생기고 더욱 자유롭게 됩니다. “나는 이 살이다, 손톱이다, 이것저것이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 창조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리다, 난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 긍정적인 에너지의 후광을 창조하라

**질문자 :** 관광(빛의 명상)을 한 후 그 다음 날 관광을 했던 방에 들어갔을 때 소리와 진동을 듣고 느낄 수 있습니까?

**스승님:** 예, 물론입니다. 심지어 벽도 진동하고 천정도 진동하지요.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디서 명상을 하든 에너지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에 둘러싸이게 하기 위해서지요. 명상이나 신, 스승의 힘,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도 좋은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 명상하면 좋은 에너지가 형성되어 거기에 남아 있는것이 당연하지요. 그곳에서 명상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는 더욱 두꺼워집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수록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에너지의 층도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유유상종으로 여러분은 사방에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이른바 ‘에너지 주머니’, 좋은 에너지의 후광을 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수록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할수록 좋은 에너지를 더 많이 형성해 갑니다. 좋은 에너지를 형성할수록 기분이 더욱 좋아지고 보다 좋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돌고 돌지요.

그러니 절대로 부정적인 순환으로 떨어지지 말고 긍정을 유지하십시오. 그게 힘들다는 건 나도 압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지요.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세요. 항상 긍정적이고자 노력하고 가능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이동주택을 창조해 어디를 가든 빛과 좋은 에너지, 좋은 진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이 지고 있을수록 흡인력이 커지고, 흡인력이 커질수록 더 힘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됩니다. ☯

## 수행과 수정의 힘

**질문 :** 안녕하세요, 스승님. 지난 며칠 간 전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수정과 그 에너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역시 수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저는 수정에 어떤 힘이 있다고는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수정 에너지의 용도에 대해 지식과 지혜가 좀 있었습니다. 입문양식에서 영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말대로라면 그는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으니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선 저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만약 그가 사랑이 넘치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게 왜 나쁜 일인가요? 그것이 나쁜 건가요? 그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나요?

스승님: 해 봐도 됩니다.


질문자: 나쁜 게 아니라고요?

스승님: 아닙니다.

질문자: 정말 잘 됐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쁘다  
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승님: 하지만 수정은 수정일 뿐 신의 힘이 아닙  
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약초처럼 사용할 수는 있을 겁  
니다. 그건 아마 부가적인 도움은 주겠지만 궁극적인 힘

은 아닙니다. 그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외  
적인 것에만 너무 의존한다면, 좋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바깥의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의  
사에게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수정에 의존하고 신  
통 등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내게  
오면, 난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서 더 큰 수  
정을 얻을테니 그걸 이용하세요. 그건 영원불변하고  
돈도 들지 않으며, 몸에 지닐 필요도 없고 운을 낼 필  
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소한 장난감을 버릴지 여부는 자신에  
게 달렸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면 결코 다  
녀도 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만 않  
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수정이 치  
유를 해줬다는 등의 선전을 하지는 마십시오. 수정보  
다 더 큰 힘이 존재하니까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영구적이고 치유하는 힘이 더 크다고 일깨워 줘야 합  
니다. 



영혼의 고양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348 스승의 힘이 깨달음을 가져온다  
1993년 4월 7일 미국 시애틀 강연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667 신의 햇불이 되라  
1999년 11월 25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강연

674 사랑과 웃음 속을 거닐자  
1999년 11월 28-30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선상





## 약속을 소중히 지키자

청하이 무상사/ 1996. 1. 22./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466

이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소중히 지켜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만일 서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들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심이 점점 약해져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에도 아무런 감응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불보살이나 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라든가, 혹은 신에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예를 들어 어떤 난민들은 해상탈출을 하면서 관음보살에게 맹세를 합니다. “저희를 무사히 제3국에 도착하게 해 주신다면 반드시 2년 동안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채, 2년 동안의 채식 약속을 아주 오랫동안 미뤄 놓습니다. 본래는 2년 동안 매일 채식 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하지 않거나 그냥 잊어버리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 번 채식 하니까.” 결국 2년은 한없이 길어지게 되지요.

다음의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아이가 열이 올라 심하게 앓게 되자 부모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한 후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두가 여신(인도의 신 중에 첫 번째로 생겨난 여신, 주로 나쁜사람들을 벌함)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여신은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녀는 과거에 깨달은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많은 신을 숭배하는데, 그 신들은 과거 각지의 유명한 깨달은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마 살아있었을 때 매우 영험해서 숭배를 받았겠지요. 그러므로 인도인들이 많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과거의 스승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비슷한 예로 중국인들이 섬기는 ‘마주’ 역시 이전에 유명했던 스승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에게 기도를 하면 감응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녀에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는 영험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지요. 이미 관습이 되었으니까요.

관음보살 역시 과거의 살아 있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녀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자 제자의 이웃들도 그렇게 기도해 응답을 받았고, 후에는 그들의 자손까지 기도를 했으며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음보살이 오래 전에 떠났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에게 기도합니다. 관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살아 있는 스승에게 기도해야 감응이 더 빠르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 아버지는 두가 여신의 사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신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영험했나 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으시죠? 아이가 낫는다면, 아이를 여기 데려와 당신께 절을 하도록 하고 저 역시 당신께 100루피를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로선 100루피가 꽤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엔 돈이 더 가치가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100달러나 10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두가 여신은 정말 영험해서 아이의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인데도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는 건 분명 그 여신이 아이를 축복해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100루피를 바치겠다고 한 약속



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야단났다! 아이 약값으로 이미 많은 돈을 쓴데다 의사가 보약을 많이 처방해서 돈을 더 써야 하는데! 지금 경제 사정도 좋지 않으니 50루피만 공양해도 괜찮지 않을까? 두가 여신은 틀림없이 내 처지를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그는 여신이 이해해 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바로 실행하지 않았지요.

몇주가 지나자 다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두가 여신 혼자서는 50루피어치의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여신인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서 뭐 하겠어! 경전에도 ‘신실한 마음으로 신께 공양 한다면 그 공양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아주 작은 재물이라도 성심만 있다면 신은 기뻐하신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 물질적인 공양을 바라지 않으실 거야. 신실하면 된다고 경전에서도 말했으니 여신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 신전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경배를 드리고 5루피만 공양 올려도 충분할 테지.” 하지만 역시 그런 생각들만 할 뿐 그는 여전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전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종을 울리곤 했는데, 그 종소리를 듣자 여신에게 공양하기로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공양물로 바칠 5루피어치의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곤 두가 여신에게 바칠 5루피어치의 공양물을 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봐!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 여신이 뭇 때문에 5루피어치 음식을 드시려 하겠어? 정말 한심하군! 그냥 신전에 가서 성심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1루피 어치 코코넛을 사서 공양 올리면 돼. 중요한 건 자네의 신실함이지, 값이 아니야. 알겠어?”

이 말은 꽤 그럴 듯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구두쇠였으니까요. 그는 1루피 어치 코코넛을 사러 코코넛 가게로 갔습니다. “코코넛 하나에 50페이지즈” 하고 상인이 말했습니다. 1루피는 100 페이지즈에 해당하지요. “뭇라고요? 뭇가 그렇게 비싸요? 하나에 40페이지즈 합시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상인은 “그런 가격이라면, 도매시장에나 가 봐야 할 거요”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에 아이 아버지는 도매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선 정말 코코넛 1개당 40페이지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시장의 상인과 또 흥정을 했습니다. “난 여기 오느라 먼 거리를 걸어 왔는데 어떻게 코코넛 하나에 40 페이지즈란 말이요? 그럼 별 차이가 없으니 20페이지즈에 주시오.” 그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개당 20페이지즈에 사고 싶다면 농장에 가보시오. 거기에서나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을 테니.” 그 말을 듣고 그는 농장에 가서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 그는 아주 멀리까지 걸어 코코넛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농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20페이지즈에 팔겠습니다.” “하지만 난 여기 오느라 정말 먼 거리를 걸어서 왔습

니다. 20페이지즈 하지 말고 하나에 10페이지씩 해서 내게 파시오. 코코넛 하나에 20페이지라면 그리싼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기를 쓰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지 않소?” 남



자의 말에 농부는 이렇게 말했지요. “10페이지에 사려면 나무에 직접 올라가 코코넛을 따시오.”

천성적으로 지독한 구두쇠였던 그는 돈을 아끼려고 정말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긴 했지만 경험이 없었던 탓에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매달려 도와달라고 소리쳤지요. 그 때 두가 여신이 코코넛 상인의 몸을 통해 100루피를 내놓으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웃음) 그러자 남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100루피를 내겠노라고 동의했지요. 구조되어 나무에서 내려온 후 그는 농부를 집에 데려가 그 자리에서 100루피를 지불했습니다. 흥정할 여지가 없었지요. 그제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신전을 찾아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신에게 100루피를 공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에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



## 칭하이 무상사의 새로 나온 MP3 CD

MP3-7(하)1989년 7월 29 - 8월 6일 포모사 시후 선칠

9. 꿈에 대한 스승님의 백화림 강연
10. 동수들의 종교가곡 노래
11. 백화림에서의 동수들의 수행체험 발표
12. 스승님의 이야기
13. 불찬과 할렐루야 (성찬)
14. 배불(拜佛)하는 법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 Fax : (886) 2-87870873

E-mail :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외국어로 된 스승님의 출판물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Tel: (031) 772-9250 E-mail : chinghai@unitel.co.kr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 깨달음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원문 영어)

너무나 사랑하는 칭하이 무상사께,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신 스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진정한 진아를 일깨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을 만나게 해 주신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소망은 성스런 하느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9일 플로리다에서 입문한 후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스승님께서 저와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으며, 제 기도엔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슬픔으로 크게 울면서 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스승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장 자비롭고 전능한 당신 앞에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자 신이시기도 한 스승님, 육신으로 오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깨달음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국민들이 모두 깨어나 깨닫길 기도합니다. 또 신의 은총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 평화가 자리해 사람들이 신의 모든 창조물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중생들과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자비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02년 2월 13일  
마리아 린다 캐넌 올림

##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입문자 리/ 중국 대륙

존경하고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께

스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본토의 제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홍법이 순조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설 무렵 저는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어 저와 가족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일로 심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사회에서 도망치려고 생각했으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 우연히 한 동수의 집에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읽게 되었고, 스승님의 가르침은 제 일과 생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법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지요.

그 이후 1년이 지나고 스승님의 보살핌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모든 면에서 매우 큰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을 구해주신 스승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스승님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며, 스승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갚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는 길만이 스승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입문하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새해,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2년 2월 9일  
제자 리 올림



# 파동 에너지와 건강 혁명

린 밍차오 사형  
(포모사 난토우 병원 한의사)

뉴스잡지 114호와 127호에서 음식의 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상태와 의식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의 과학자가 발명한 자기공명장치(MRT)가 소개된 바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다 감지할 수 있는 이 고성능 기계는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기타의 선진국가에도 이와 유사한 양자(퀀텀)나 MRT(경맥조정침요), LFT(생명 자장분석기), EAV(경맥 전기침요기)등의 기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공학박사 후카노 카즈유키는 저서인 파동 에너지와 건강 혁명'에서 이런 기계들의 작동 및 응용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다.

후카노 카즈유키 박사는 이 기계들을 '파동기기'라고 명칭하고 있다. 그는 '우주의 본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며, 그것은 '우주 에너지'라는 초미립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우주 에너지는 소용돌이와 같은 파동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 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들을 '파동기기'라고 정의한다.

이 책에서는 현재의 지구문명이 '우주는 물질 세계다', '인류는 육체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우주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류는 육체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몸' (근원적인 생명체, 즉 영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주류 과학은 우주와 인류에 관한 수많은 실

상들을 관찰할 방도가 없다. 최근 들어 파동기기는 인류가 무형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계몽적인 역할을 하였고, 우주 에너지의 존재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 음식 측정 분야에 응용

파동기기의 발명으로 음식이나 식수는 더 이상 '5대 영양소 분류', '화학성분 분석'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섰다. 화학 분석만으로는 음식과 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힘든 반면, 파동기기는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분석결과를 낼 수 있다. 즉 높은 파동수의 음식은 건강에 유익한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건강에 좋지 않거나 심지어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파동기기의 측정에 따르면 계란을 비롯한 육류는 파동 에너지가 매우 낮고 건강에 대단히 해롭다. 이외에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해 생산한 농작물과 식품도 파동 에너지가 매우 낮았다. 이런 음식들은 신체 미네랄의 균형을 파괴시키는 요인이며, 인체의 자가 치유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이런 음식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식품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야채나 과일, 해조류 등은 파동 에너지 수치가 높아서 건강식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중 비교적 수치가 낮은 소수의 경우는 과도한 농약 살포와 화학 비료로 경작하기 때문이다.

## 수질 검사에 응용

본래 물은 우주 에너지를 쉽게 받아들이는 특질을 갖고 있다. 테스트 결과 대도

시의 수돗물이나 오염된 물은 낮은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산의 샘 물은 보다 강한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토양 속의 미네랄로 깨끗이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파동 지수는 이른바 ‘성수(聖水)’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이런 물은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

## 의학 분야에 응용

최근 새로이 생기는 파동기기를 통해 무형 세계의 에너지를 실험, 연구하는 신흥 의학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은 ‘에너지 의학’ 혹은 ‘양자 의학’이라 불린다. 이 의학들은 ‘소리 요법’, ‘빛 요법’, ‘공간 요법’ 등의 치료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외에도 파동기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水)’를 만들어 기존의 약물요법을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다.

## 파동기기의 본질

인류의 의식 수준은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의식이 높을수록 보다 정교하고 편리한 고성능의 기계가 창조된다. 파동기기는 인류 기술 발전의 새로운 영역이며 또한 이는 인류의 의식 차원이 고양되었음을 명시한다. 과학자들이 이 수행을 통해 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거나 기존의 개념들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고도의 기계가 발명된다고 해도 물질 차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육체라는 완전무결한 파동기기를 갖고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지만, 불행히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든지 알지 못한다. 정밀한 기계는 능숙한

전문 기술자가 다룰 때만 정확하게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완전무결한 파동기기’를 다루려면 그 오묘한 이치를 잘 알고 있는 ‘초전문가’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내면의 우주 에너지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며, 그들의 인도가 있어야 그 에너지를 한층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수행은 ‘초과학(超科學)’이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의 몸에는 대략 7개의 차크라(에너지 중심)가 있는데, 그곳으로 우주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힘을 자동적으로 채충전하므로 우리가 육체를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이 힘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래서 줄수록 더 많이 생기며,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업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업장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NO.446, 1994. 9. 4. 태국 단체 명상 (원문 영어)]

위에 기술한 의학 요법과 새로운 개념들은 수행이 ‘초과학’이지 반(反)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 이런 개념은 관음가족들에겐 조금도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명상하며 ‘빛 요법’과 ‘소리 요법’, 심지어 ‘공간 요법’까지 누리며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을 골고루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관음가족은 얼마나 복이 많은 ‘신의 자녀’인지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명과 입증을 통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해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수행의 길을 걷게 되길 희망해 본다. ☯

[illegible]





## 포모사 소식

### 교도소 음력 설 행사



까오슝 소년 감호소 황 진딩 소장(오른쪽)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청소년 재소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명예기를 표창한다.

재소자들과 따뜻한 음력 설을 보내기 위해 포모사 동수들은 1월 31일 까오슝 소년 감호소와 타이난 교도소, 밍더 개방 교도소에서 3차례의 행사를 갖고 이어서 2월 7일에는 창화 소년원에서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 동수들은 성심으로 참가하였으며, 훌륭한 공연으로 큰 찬사를 얻었다.

1월 31일 오전, 100명이 넘는 우리 동수들이 까오슝 소년 감호소에 도착하자 예전에 이처럼 대규모로 들어와 공연을 펼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 재소자들은 매우 놀라워했다. 깊은 감동을 받은 황 진딩 소장은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그 회원들이 보여 준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는 명예기를 표창했다. 6세 어린이부터 70세 노인까지 포함된 동수들이 혼심을 기울여 멋진 공연을 펼치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 동수들이 보여준 사랑으로 재



타이난 교도소의 음력 설 행사

소자들은 훈훈한 온정을 느끼고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었다.

점심 휴식을 마친 후, 우리는 타이난 교도소로 향했다. 이 시설은 엄한 통제로 알려져 있지만, 소내는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환경이 아름다웠다. 이날 행사에서 1천여 명의 재소자들이 우리와 함께 2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타이난 교도소 교화과 황과장은 우리의 봉사활동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동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재소자들이 가슴에 품어 둔 오랜 억눌림을 해소하길 희망했다.

타이난 교도소를 떠난 우리는 이어 밍더 개방 교도소로 향했다. 밍더 개방 교도소는 초목이 푸르게 자라난 곳에 무릉도원과도 같은 환경에 위치해 있어 그 곳의 자애로운 행정을 말해 주고 있었다. 노래



와 춤, 연극 등의 동수들의 공연은 재소자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음력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월 7일에는 사랑을 한 아름 안고 창화 소년원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불교단체인 타이난 '대각동심회' 이사장이 사전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동수들은 많은 훌륭한 공연들을 선보이고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상영하였다. 이 외에도 재소자들에게 방편법을 소개했는데, 이는 매일 짧은 명상시간이나 재소자들의 영혼을 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가 끝난 후 재소자들은 조금 전 방편법을 배우며 주의 집중하는 짧은 순간에도 강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고 전했다.



까오슝 소년 감호소 재소자들과 동수들이 함께 노래하며 즐거움을 나누다.



창화 소년원에서 진행된 음력 설 행사





## 포모사 타이난 소식

### 음력 설을 앞두고 빈민을 방문하다

해마다 음력 설을 앞두고 타이난 센터 동수들은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선행사를 준비한다. 금년에도 불의의 사고나 불행을 겪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을 방문했다.

2월 9일, 타이난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을 안고 타이난과 신



타이난 동수들이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다.



잉, 류잉, 쉬에지아 등지의 빈곤가정 19세대를 방문했다. 우리가 도착해 신년 선물을 나누어 주자, 그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내며 그 중에는 스승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달라면서 우리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한 할머니는 불당에 스승

님의 사진을 올려놓고 매일 절을 올린다고 했다. 그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들 가정을 돌보시는 수호신인 스승님으로부터 크나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을 나는 이 어려운 이웃들의 가슴에 스승님의 사랑이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으셨으리라 믿는다.



## 포모사 핑둥 소식

### 한 겨울에 온정의 성금을 전하다

음력 설이 다가오면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도 어렵게 겨울을 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핑둥현 완루안향 신즈촌의 빈민가정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왕 허칭 촌장은 이곳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12년 재직하는 동안 우리 협회가 보여 준 주민들을 위한 자원 청소활동, 무료 진료활동, 명절 성금전달 등의 많은 도움과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



음력 설 전날, 동수들이 스승님의 사랑을 안고 벽지의 빈민가정을 찾아 성금을 전하다.

다. 이번 자선활동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훈훈한 음력 설의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혜택을 입은 주민들은 각자 동수들의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했다.

### 환경미화 활동

아름다운 이른 봄을 맞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까오핑 센터는 라

이이 도장이 있는 핑둥현 완루안향 신즈촌에서 거리 청소활동을 가졌다. 동수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거리를 돌봐 왔다. 많은 동수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점심식사 후 동수들은 작업 조끼를 입고 청소를 시작했다. 우선 도로 옆의 제초작업을 한 후, 이어서 포장도로 양쪽의 쓰레기와 잡초를 치우고 길 옆 울타리를 넘어 길게 자란 덩굴들을 잘라냈다. 이 거리 청소는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우리 센터와 동수들의 선의와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촌장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찬사를 받았다. 촌장 부인은 우리의 활동에 대해 찬사를 금치 못하면서 그날 오후 라이이 도장을 방문해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수년 간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무료 진료상담, 거리청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평동 동수들이 신즈 촌 거리 청소에 참가하다.



촌장의 부인(왼쪽에서 두 번째 분홍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감사를 전하기 위해 라이이 도장을 방문하다.



## 캐나다 몬트리올 소식

### 2002 어울락인 신년전

#### 빈민들을 위한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

2002년 2월 10일, 어울락 신년전이 몬트리올 히포드롬에서 열렸다. 금년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전년도보다 훨씬 큰 1만 5천석 상당의 행사장을 임대했다. 몬트리올 센터 역시 작년보다 더 넓고 편안한 부스를 마련해 어울락인과 다른 여러 민족의 방문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많은 방문객들이 3대의 TV 앞에 발길을 멈추고 강연을 시청했다.

이 날 캐나다 텔레비전(CTV)에서 우리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했으며, 몬트리올 최대 라디오 방송국 중 하나인 라디오 캐나다에서 관음법문에 대해 우리와 인터뷰를 가졌다. 우리 전시대 앞에 멈춰선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한 연로한 이

민 심사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과거 어울락인 6만명, 중국과 필리핀, 인도 등지에서 온 10만명 이상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다. 떠나기 전, 그녀의 계속된 요청으로 우리는 그녀와 함께 스승님의 부스앞에서 사진을 찍고, 스승님의 책과 강연 비디오 및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천의를 한 벌 선물했다. 견본책자를 한 권 요청한 행사장의 한 안전요원은 후에 다시 찾아와서 동료들에게 줄 책자를 추가 요청하며 지역 센터의 주소를 문의했다.

스승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어울락인 여성은 바로 스승님의 예술적인 재능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스승님의 시집을 구입하기도 했다. 맥길 대학의 유명한 의학 교수이기도 한 몬트리올 어울락인 단체 회장은 우리 부스를 방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나는 칭하이 스승님의 활동에 대해 매우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 유다 병원과 별빛 어린이 재단을 통해 어린이를 도우신 점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 옆 부스의 한 관계자는 자신도 명상을 하는데



불우한 어울락인들에게 전해진 선물마다 스승님의 사랑이 함께하다.



우리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이민 심사관 (왼쪽에서 첫 번째)



수많은 방문객들의 매력적인 우리 부스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찬탄하다.

우리 부스에서 발산되는 스승님의 큰 힘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숙녀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힘이 강한지에 대해 묻고 몬트리올 센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오후 4시부터 우리는 많은 아이들을 부양하는 빈곤 가정에 선물을 나눠 주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뿔뿔이 기뻐하며,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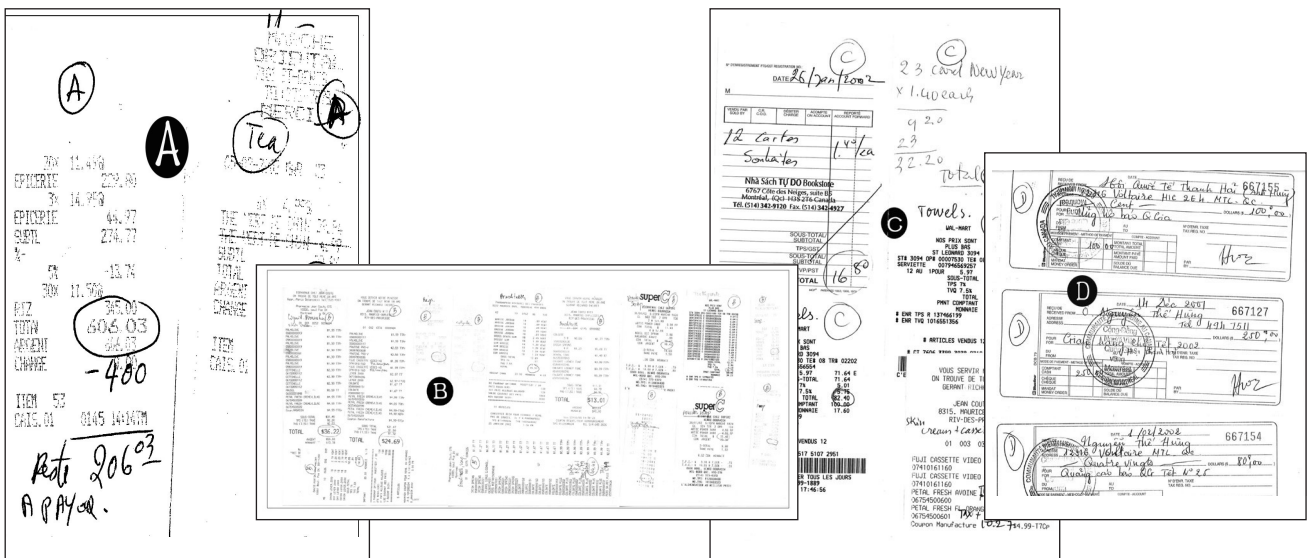
한 때에 잊지 않으신 스승님의 자비심에 감사했다.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전시대를 떠나 갔다. ☯

## 칭하이 무상사의 2002년 어울락인 신년전 경비 지출 내역

(부스 대여비 및 가난한 어울락 동포에 대한 선물 포함)

(단위 : 캐나다달러)

| 항 목                                | 금 액           | 영수증(첨부) |
|------------------------------------|---------------|---------|
| 쌀, 사탕, 차                           | \$635.97      | A       |
| 비누, 치약, 칫솔                         | \$270.74      | B       |
| 수건, 핸드 로션, 연하장                     | \$224.07      | C       |
| 부스 대여비                             | \$430.00      | D       |
| 문구 등 잡화 : 간판, 휘장, 필름, 사진 복사, 스탬프 등 | \$303.00      |         |
| 생활 보조금 지급                          | \$1,300.00    |         |
| 총 지출액(캐나다 달러)                      | \$3,163.78    |         |
| 총 지출액(미국 달러)                       | US \$2,028.06 |         |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 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 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                           |                                                                |
|------------|---------------------------|----------------------------------------------------------------|
| ★ 앙골라      | 센터                        | luandacentre@yahoo.com                                         |
| ★ 베닌       | 센터                        | 229-383-982<br>smbenin@yahoo.fr                                |
| ★ 카메룬      | 센터                        | 237-865026<br>smcameroon@hotmail.com                           |
| ★ 가나       | 센터                        | 233-27-607-528<br>smghanac@yahoo.com                           |
| ★ 케냐       | 센터                        | 254-72-603953<br>atmoske@yahoo.com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 타운 센터                 | 27-83-952-5744<br>capetowncentre@yahoo.com                     |
|            | 더반 센터                     | 27-31-368-7759<br>durbancentre@yahoo.com                       |
| 요하네스버그     | Mr. Gerhard Vosloo        | 27-11-880-0349<br>ghvosloo@mweb.co.za                          |
|            | Mr. Gilbert Kamgain       | 27-82-754-3840<br>gkamgain@yahoo.com                           |
|            | Mrs. Tracey Ho            | 27-11-6402085<br>sajhbcntr@pchome.com.tw                       |
| ★ 토고       | 팔리메 센터                    | 228 410 948                                                    |
|            | 로메 센터                     | 228 222864<br>smtogo@yahoo.com                                 |
|            | Mr. David Chine           | 228 215551                                                     |
| ★ 우간다      | 캠팔라                       |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br>smkampalacntr@yahoo.com |
| ★ 모리셔스     | 포르투이스                     |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br>smchmauritius@meloo.com   |
|            | Ms. Josiane Chan She Ping | 230-242-0462<br>smchmauritius@yahoo.com                        |

### \*\*\*아메리카\*\*\*

|         |                              |                                                                          |
|---------|------------------------------|--------------------------------------------------------------------------|
|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 아이레스                    |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br>innermelody@vianw.com.ar     |
| 산타 크루즈  | Mrs. Adalina da graca Munhoz | 591-337-2039<br>adamunhoz@hotmail.com                                    |
| 트리니다드   | Mr. Wu Chao Shien            | 591-4625964                                                              |
| ★ 브라질   | 벨렘                           | Mr. Wei Cheng Wu 55-91-223-9414                                          |
|         | Ms. Salma Casierra Alvarez   | 55-81-3262912                                                            |
| 레시페     | 센터                           | 55-11-5579-1180/3884-3155                                                |
| 상 파울루   | 연락인 사무실                      | 55-11-227-4690/228-7029<br>brcenter@hotmail.com                          |
| ★ 칠레    | 라세레나                         |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br>laserenacntr@hotmail.com       |
| 산티아고    | 센터                           | 56-2-6385901<br>chilecenter@hotmail.com                                  |
|         | 연락인 사무실                      | 56-2-6389229                                                             |
| ★ 콜롬비아  | 보고타                          |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 ★ 코스타리카 | 산호세                          | 센터 506-2200-753<br>Ms. Laura Chen 506-363-2748<br>laurachenr@hotmail.com |
| ★ 온두라스  | 테구시갈파                        |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 멕시코   | 멕시코                          |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br>eternalmaster2002@yahoo.com.mx    |
|         | 멕시코DF                        | 센터 52-55-5752-7472/5639-3506<br>kamel@avantel.net                        |
|         | 멕시코 주                        |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br>tecenr@sinfon.net.mx                          |

|          |                                       |                                               |
|----------|---------------------------------------|-----------------------------------------------|
| 몬테레이     | Mr. Roque Antonio Ledl Suffo          | 52-8-379-0897<br>mttycenter@starmedia.com     |
| ★ 니카라과   |                                       |                                               |
| 마나과      | Mrs.Pastora Valdivia Iglesias         | 505-248-3651<br>roxanavet@hotmail.com         |
| ★ 파나마    | 센터                                    | 507-236-7495                                  |
|          | Ms. Maritza E.R. de Leone             | 507-260-5021<br>mrleone@hotmail.com           |
| ★ 파라과이   |                                       |                                               |
| C.D. 이스트 | Mr. Zhi-Lu Tsao                       | 595-61-502034<br>jscmike@fnn.net              |
| ★ 페루     |                                       |                                               |
| 쿠스코      | Ms.Patricia Kross Canal               | 51-54-232-682<br>cuscoentro@yahoo.com         |
| 리마       | 센터                                    | 51-1-4716472<br>lvalenciap@bonus.com.pe       |
|          |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 51-1-4667737<br>chinghailimaperu@hotmail.com  |
|          | Mr. Victor Carrera                    | 51-1-2650310                                  |
| 푸노       | Ms. Mercedes Rodriguez                | 51-54-353039<br>punocentroperu@yahoo.es       |
| 트루히요     | Mr. Luis Rebaza                       | 51-44-260871<br>larv@terra.com.pe             |
| ★ 살바도르   |                                       |                                               |
| 산 살바도르   | Mr.Manuel Menjivar                    | 503-216-9413<br>quijano_manuel@yahoo.es       |
| ★ 트리니다드  | 아일랜드                                  |                                               |
|          | Mr. Ray Alibocus                      | 1-868-637-1054<br>alibocus@tstt.net.tt        |
| ★ 캐나다    |                                       |                                               |
| 에드몬톤     | Mr. Brian Hokanson                    | 1-780-444-6568                                |
|          | Mr. & Mrs. Dang Van Sang              | 1-780-963-5240<br>dangvansang@hotmail.com     |
| 킹스턴      | Mr. Quang Thanh Le                    | 1-613-384-3295                                |
| 런던       | 센터                                    | 1-519-438-3702<br>uniself@yahoo.com           |
| 몬트리올     | 센터                                    | 1-514-277-4655                                |
|          | Ms. Euchariste Pierre                 | 1-514-277-2717<br>p_eucharistel@sympatico.ca  |
|          | Mr. Hung The Nguyen                   | 1-514-494-7511<br>nguyenthehung40@hotmail.com |
|          | Mr. & Mrs. Nai-Chi Hsu                | 1-450-647-4871                                |
| 오타와      | Mr. Armand Laplante                   | 613-740-1017<br>er574@freenet.carleton.ca     |
| 토론토      | 센터                                    | 1-416-503-0515                                |
|          | Ms. Diep Hoa                          | 1-905-897-0650                                |
|          | Mr. & Mrs. Lenh Van Pham              | 1-416-282-5297<br>hiepham@rogers.com          |
| 밴쿠버      | Ms. Li-Hwa Liao                       | 1-604-541-1530<br>jsung66@shaw.ca             |
|          | Ms. Sheila Coodin                     | 1-604-739-6758<br>oceanoflove@prismnet.bc.ca  |
|          | Ms. Nguyen Thi Yen                    | 1-604-581-7230                                |
| ★ 미국     |                                       |                                               |
| 애리조나 :   | 센터                                    | 1-623-581-0725<br>ArizonaCtr@yahoo.com        |
|          | Mr. & Mrs. Kenny Ngo                  | 1-602-404-5341                                |
| 아칸소 :    | Mr. Robert Jeffreys                   | 1-501-253-8287<br>bobj@arkansas.net           |
| 캘리포니아 :  |                                       |                                               |
| *로스앤젤레스: | 센터                                    | 1-909-674-7814                                |
|          | Mr. & Mrs. Tsung-Liang Lin            | 1-626-914-4127<br>tllin54@hotmail.com         |
|          | Mr. & Mrs. Dong Phung                 | 1-626-284-9994<br>SanGabriel99@hotmail.com    |
|          | Mr. Gerald Martin                     | gmartin0999@hotmail.com                       |
| *새크라멘토   | Mr. & Mrs. Hieu De Tu                 | 1-916-682-9540<br>Saccenr.ca@usa.com          |
| *샌디에이고   | 센터                                    | 1-619-280-7982<br>quanyinsd@juno.com          |
|          | Mr. & Mrs. Tran Van Luu               | 1-619-475-9891                                |



|                |                               |                   |                  |                                 |                                               |
|----------------|-------------------------------|-------------------|------------------|---------------------------------|-----------------------------------------------|
| *샌프란시스코        | 센터                            | KHOALUONG@aol.com | *로체스터            | Ms, Debra Couch                 | 1-716-256-3961<br>success@coachdebra.com      |
|                | Mr. & Mrs. Khoa Dang Luong    | 1-415-753-2922    | <b>노스캐롤라이나 :</b> |                                 |                                               |
|                | Mr. & Mrs. Dan Hoang          | 1-415-333-9119    |                  | Mr. & Mrs. Huynh Thien Tan      | 1-704-535-3789                                |
| *산 호세          | Ms, Sophie Lapaire            | 1-650-988-6500    | <b>오하이오 :</b>    | Mr. & Mrs. Vu Van Phuong        | 1-513-887-8597<br>von@swoca.net               |
|                | Sophie.Lapaire@eng.sun.com    |                   |                  | Mr, Gilbert Rivera              | 1-513-381-4554<br>wisdmeye@aol.com            |
|                | Mr. & Mrs. Edgar Shyuan       | 1-408-463-0297    | <b>오클라호마 :</b>   | Mr. & Mrs. Tran Kim Lam         | 1-405-632-1598<br>LTRAN2292@aol.com           |
|                | Edgar-Teresa@worldnet.att.net |                   | <b>오리건 :</b>     |                                 |                                               |
|                | Mr. Loc Petrus                | 1-510-276-4631    | <b>*포틀랜드</b>     | Ms, Vera Looijenga              | 1-503-234-1416                                |
|                | petrusl2k@earthlink.net       |                   |                  | Mr. & Mrs. Minh Tran            | 1-503-614-0147<br>orcenter@hotmail.com        |
|                | Mr. Jim Su                    | 1-408-253-8516    |                  |                                 |                                               |
|                | sumajim@aol.com               |                   |                  | Ms, Youping zhong               | 1-503-257-2437<br>youping320@yahoo.com        |
|                | Mr. James Kiet Le             | 1-408-262-8233    | <b>펜실베이니아 :</b>  | Mr. & Mrs. Diep Tam Nguyen      | 1-610-352-7787<br>DiepAshleyPa@yahoo.com      |
| 콜로라도 :         | Ms, Victoria Singson          | 1-303-986-1248    |                  | Mrs, Ella Flowers               | 1-215-879-6852                                |
|                | James_Le@adaptec.com          |                   | <b>텍사스 :</b>     |                                 |                                               |
|                | torahi@ureach.com             |                   | <b>*오스틴</b>      | 센터                              | 1-512-396-3471<br>jjdauw@yahoo.com            |
| <b>플로리다 :</b>  |                               |                   |                  | Mr, Dean Duong Tran             | 1-512-989-6113<br>tranduongdean@yahoo.com     |
| *케이프 코랄        | Mr. & Mrs. Thai Dinh Nguyen   | 1-941-458-2639    | <b>*달라스</b>      | 센터                              | 1-214-339-9004<br>DallasCenter@yahoo.com      |
|                | Ms, Trina L, Stokes           | 1-941-415-3963    |                  | Mr, Tim Mecha                   | 1-972-395-0225<br>mechat@email.msn.com        |
|                | tls77@aol.com                 |                   |                  | Mr, Weidong Duan                | 1-972-517-5807<br>water96@yahoo.com           |
| *올랜도           | Mr, Michael Stephen Blake     | 1-407-333-0178    |                  | Mr, Jimmy Nguyen                | 1-972-206-2042<br>DallasCenter@hotmail.com    |
|                | ekalbekim@yahoo.com           |                   | <b>*휴스턴</b>      | 센터                              | 1-281-893-8300                                |
|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 1-770-936-9926    |                  | Ms, Carolyn Adamson             | 1-713-6652659<br>cadamson@houston.rr.com      |
|                | GeorgiaCnt@aol.com            |                   |                  | Mr. & Mrs. Charles Le Nguyen    | 1-281-370-3898<br>DNgyuen376@aol.com          |
|                | Mr. James Collins             | 1-770-934-2098    |                  | Mr. & Mrs. Robert Yuan          | 1-281-251-3199<br>Robert.Yuan@Compaq.com      |
|                | Ms, Kim Dung Thi Nguyen       | 1-404-292-7952    | <b>*샌안토니오</b>    | Mr, Khoi Kim Le                 | 1-210-558-6088                                |
| <b>하와이 :</b>   | 센터                            | 1-808-735-9180    | <b>버지니아 :</b>    | 센터                              | 1-703-941-0067                                |
|                | hawaiictr@hotmail.com         |                   |                  | Mr. & Mrs. Hua Phi Anh          | 1-703-978-6791<br>anhhy@dotplanet.com         |
|                | Mrs, Dorothy Kaomi Sakata     | 1-808-988-6059    | <b>*버지니아 비치</b>  | Mr, David Young                 | 1-757-588-8468<br>davidkyoung@hotmail.com     |
|                | DorothySakata@aol.com         |                   | <b>워싱턴 :</b>     |                                 |                                               |
| <b>일리노이 :</b>  | Mr, tran, Cao-Minh Lam        | 1-773-506-8853    | <b>*시애틀</b>      | Mr, Ben Tran                    | 1-425-643-3649<br>benptran@usa.com            |
|                | caominhlamtran@hotmail.com    |                   |                  | Mr, Edward Tan                  | 1-206-228-8988<br>edtan@usa.com               |
|                | Mr. & Mrs. Sang-Yoon Lee      | 1-773-261-4033    | <b>*요밍</b>       | Ms, Esther Mary Cole            | 1-307-332-7108<br>sumaemc@yahoo.com           |
|                | ilovesuma@yahoo.com           |                   | <b>★ 푸에르토리코</b>  |                                 |                                               |
| <b>인디애나 :</b>  | Mr. & Mrs. Duc Vu             | 1-317-293-5303    | 카뮈               |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 1-787-262-1874<br>disnalda@caribe.net         |
|                | duchanh@aol.com               |                   |                  | Ms, Shanti Ragyi                | 1-787-723-7138<br>shantiragyi@hotmail.com     |
| <b>캔터키 :</b>   | Mr. & Mrs. Nguyen Minh Hung   | 1-502-695-7257    | <b>***아시아***</b> |                                 |                                               |
|                | fnguyen@mail.state.ky.US      |                   | <b>★ 아르메니아</b>   | Mr, Armen Hovhannisyan          | 374-1-227303<br>armenhovhannisyan@hotmail.com |
| <b>루이지애나 :</b> | Mrs, Jon L Fontenot           | 1-504-483-3234    | <b>★ 포모사</b>     |                                 |                                               |
|                | jfontenot@hotmail.com         |                   | 타이베이             | 센터                              | 886-2-2375-7527<br>smchtpe@ms33.hinet.net     |
| <b>메사추세츠 :</b> |                               |                   |                  | Mr, Chuan-Ping Yang             | 886-2-23756784<br>shloh@ndmctsg.hk.edu.tw     |
| *보스턴           | 센터                            | 1-978-436-9982    |                  | Mr, Chiu Min Fen                | 886-2-23890885                                |
|                | shinemound@earthlink.net      |                   |                  | Mr. & Mrs. Chen Tsan Gin        | 886-37-221618                                 |
|                | Ms, Gan Mai-Ky                | 1-508-791-7316    |                  | Mr, Chu Chen Pei                | 886-37-724726                                 |
|                | Mr. & Mrs. Huan-Chung Li      | 1-978-957-7021    |                  |                                 |                                               |
| <b>메릴랜드 :</b>  | Mr, Nguyen Van Hieu           | 1-301-933-5490    |                  |                                 |                                               |
|                | HughMDCenter@yahoo.com        |                   |                  |                                 |                                               |
|                | Mr, Robert Ectman             | 1-301-972-5654    |                  |                                 |                                               |
|                | bce94@hotmail.com             |                   |                  |                                 |                                               |
| <b>미시간 :</b>   | 센터                            | 1-248-370-2924    |                  |                                 |                                               |
|                | smmicenter@yahoo.com          |                   |                  |                                 |                                               |
| <b>미네소타 :</b>  | Ms, Quach Ngoc                | 1-612-722-7328    |                  |                                 |                                               |
|                | quach001@msn.com              |                   |                  |                                 |                                               |
| <b>미주리 :</b>   |                               |                   |                  |                                 |                                               |
| *제퍼슨           | Ms, Mary E. Steck             | 1-573-761-9969    |                  |                                 |                                               |
|                | MSteck5208@aol.com            |                   |                  |                                 |                                               |
| *롤라            | Mr, Genda Chen                | 1-573-368-2679    |                  |                                 |                                               |
|                | gchen@umr.edu                 |                   |                  |                                 |                                               |
| <b>네브라스카 :</b> | Ms, Celine Robertson          | 1-402-483-4067    |                  |                                 |                                               |
|                | crobert@lps.orgu              |                   |                  |                                 |                                               |
| <b>네바다 :</b>   |                               |                   |                  |                                 |                                               |
| *라스베가스         | Ms, Helen Wong                | 1-702-242-5688    |                  |                                 |                                               |
| <b>뉴저지 :</b>   | 센터                            | 1-973-209-1651    |                  |                                 |                                               |
|                | c_newjersey@yahoo.com         |                   |                  |                                 |                                               |
|                | Mr. & Mrs, Nghiem The Trung   | 1-609-667-3829    |                  |                                 |                                               |
|                | albert_nghiem@hotmail.com     |                   |                  |                                 |                                               |
|                | Mr, Chang-Sheng Chou          | 1-973-335-5336    |                  |                                 |                                               |
|                | JohnChou@ymusa.com            |                   |                  |                                 |                                               |
| <b>뉴멕시코 :</b>  | Mr, & Mrs, Nawarskas          | 1-505-822-1560    |                  |                                 |                                               |
|                | anawarskas@hotmail.com        |                   |                  |                                 |                                               |
| <b>뉴욕 :</b>    |                               |                   |                  |                                 |                                               |
|                | Mr. & Mrs, Zhihua Tung        | 1-718-837-4884    |                  |                                 |                                               |
|                | dong@phys.columbia.edu        |                   |                  |                                 |                                               |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 인도**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indiatimes.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begodnow@yahoo.com

자카르타 Mr. Agus Wibawa 62-81-855-8001  
 센터 smch-jkt@dnnet.net.id  
 62-21-6319066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l@ueii.com

수라바야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센터 62-31-5673084  
 ahimsasb@indosat.net.id

마켈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욕야카르타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Augustinus 62-274-588-105  
 ingtyas@eudoram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tb.biglobe.ne.jp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82-2-2202-8090  
 chinghai@unitel.co.kr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il@kornet.net

서울 서울 센터 82-2-5772158  
 quanyim@unitel.co.kr

유태인 82-2-7953927  
 이지자 82-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82-51-9574552  
 황상원 82-51-8057283  
 이원석 82-51-8946645

전주 전주 센터 82-63-2747553  
 shc5824@hanmail.net

신현창 82-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82-32-5795351  
 이재문 82-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82-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82-53-6333346  
 한선희 82-53-7675338  
 차재현 82-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82-42-6254801  
 김수동 82-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82-62-3946552  
 enlightenment@hanmir.com

안동 안동 센터 82-54-8213043  
 김삼태 82-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82-64-996113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upreme2@tm.net.my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e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고**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Mr. Raj Jumar Lama 977-61-31413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필리핀**

**★ 싱가포르**

센터 65-674-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jean@sol.lk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4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7126

센터 66-74-368329-30(c/o 155)

콘캔 센터 66-43-261878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universal@planetinternet.be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prague-center@chinghai.cz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핀란드**

헬싱키 Mis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luong@luukku.com



|         |                                     |                                                                                            |                   |                                       |                                                                  |
|---------|-------------------------------------|--------------------------------------------------------------------------------------------|-------------------|---------------------------------------|------------------------------------------------------------------|
|         | Ms. Anne Nystrom                    | 358-9-793902<br>anne.nystrom@surgeu.fi                                                     | 말뫼<br>스톡홀름        | Mr. & Mrs. John Wu<br>Mr. Mats Gigard | 46-40-973452<br>46-8-882207<br>mats.gigard@telia.com             |
| ★ 프랑스   |                                     |                                                                                            |                   |                                       |                                                                  |
| 파리      | 센터<br>Ms. Lancelot Isabelle         | 33-1-4300-6282<br>33-1-40301174<br>ilancelot@celestialfamily.net                           | 옴살라               | Ms. Premila Perera Ivarsson           | 46-18-302029<br>premila-perera@pharmacog.uu.se                   |
| 몽펠리에    | Ms. Ngo Thi Huong                   | 33-1-4376-1453                                                                             | ★ 스위스             |                                       |                                                                  |
| 아르데슈    | Mr. Nguyen Tich Hung                | 33-4-67413257                                                                              | 제네바               | Ms. Feng-Li Liu                       | 41-22-7973789<br>gefliu@yahoo.com                                |
| ★ 독일    | Ms. Reynet Jeanine                  | 33-4-75376232                                                                              |                   | Ms. Klein Ursula                      | 41-22-3691550                                                    |
| 베를린     | 센터                                  | 49-30-3470-9262<br>berlincenter@hotmail.com                                                | ★ 영국              |                                       |                                                                  |
|         | Mr. ChristianBastwoeste             | 49-30-3470-9262                                                                            | 스토크온트렌트           | Mrs. Janet Weller                     | 44-1782-414989<br>janet.weller@Zoom.co.uk                        |
| 뒤셀도르프   | 연락인 사무실                             | 49-5232-68564<br>49-174-5265242<br>ngoc-thao.nguyen@gmx.de<br>dusseldorfcenter@hotmail.com | 런던                | 센터<br>연락인 사무실                         | 44-208-3742743<br>44-207-4731421<br>pnl@matters19.freemove.co.uk |
|         |                                     |                                                                                            | 서리                | Mr. Hu Tchang Rong                    | 44-1293-416698                                                   |
| 함부르크    | 연락인 사무실                             | 49-581-15491                                                                               | ★ 스코틀랜드           |                                       |                                                                  |
| 뮌헨      | Ms. Kang Cheng                      | 49-89-3616347                                                                              | 에든버러              | Mrs. Annette Lillig                   | 44-131-6660319<br>lillig@btinternet.com                          |
|         | Ms. Johanna Hoening                 | 49-8170-997050<br>ChingHai@aol.com                                                         | 글래스고              | Mr. Robert Jackson                    | 44-141-637-7255<br>Robert.jackson@classicfm.net                  |
| ★ 그리스   |                                     |                                                                                            | *** 오세아니아 ***     |                                       |                                                                  |
| 아테네     | Mr. Constantine Manos               | 30-61-278106<br>Razahidah@hotmail.com                                                      | ★ 호주              |                                       |                                                                  |
| ★ 네덜란드  |                                     |                                                                                            | 애들레이드             | Mr. Leon Liensavanh                   | 618-83326192<br>leonadelade@hotmail.com                          |
| 암스테르담   | Mr. Nguyen Ngoc Trung               | 31-294-41-9783<br>Vothuong5@cs.com                                                         |                   | 센터                                    | 617-3847-1646                                                    |
|         | Mr. Marcel Mannaart                 | 31-72-5070236<br>m.mannaart@planet.nl                                                      | 브리즈번              | Mr. Gerry Bisshop                     | briscentre@hotmail.com                                           |
| ★ 헝가리   |                                     |                                                                                            |                   | Mrs. Tieng Thi Minh Chau              | 617-3715-7230<br>ctieng@telstra.com                              |
| 부다페스트   | 센터                                  | 361-363-3896<br>heaven.bud@mail.mata.vu.hu                                                 |                   | Mr. & Mrs. Yun-Lung Chen              | 617-3344-2519                                                    |
|         | Mr. Lux Tamas                       | 36-309-611994                                                                              | 바이런 베이/<br>노던 리버스 | Mr. & Mrs. Ray Dixon                  | 612-6685-3248<br>rayandjulie@linknet.com.au                      |
| 지울      | Ms. Dora Seres                      | 36-1379-1924                                                                               |                   | Mr. & Mrs. Khanh Huu Hoang            | 61-2-6259-1993<br>smcanbra@cyberone.com.au                       |
|         | Mr. Lehel Csaba                     | 36-96-456-452<br>clehel@freemail.hu                                                        | 캔베라               | Mr. & Mrs. Khanh Huu Hoang            | 61-2-6259-1993<br>smcanbra@cyberone.com.au                       |
| ★ 아일랜드  |                                     |                                                                                            | 멜버른               | 센터                                    | 613-9890-0320<br>Melbsmch@aol.com                                |
| 더블린     | Mr. & Mrs. Bernard Leech            | 353-1-6249050<br>berardleech@unison.ie                                                     |                   | Mrs. Rosemary Nagtegaal               | 61-3-9307-6982                                                   |
| ★ 노르웨이  |                                     |                                                                                            |                   | Mr. Pham Van Bon                      | 613-9470-4573                                                    |
| 오슬로     | Mr. Nguyen Ngoc Tai                 | 47-22-612939<br>norwayqy@hotmail.com                                                       |                   | Mr. Alan Khor                         | 61-3-9857-4239                                                   |
| ★ 폴란드   |                                     |                                                                                            | 퍼스                | 센터                                    | 61-8-9242-1189                                                   |
| 슈체친     | Mrs. Grazyna Plociniazak            | 48-091-4874953                                                                             |                   | Mr. David Robert Brooks               | 61-8-9418-6125<br>daveb@inet.net.au                              |
| 바르샤바    | Mrs. To Soszynska                   | 48-22-6593897<br>quanyin@home.pl                                                           |                   | Mr. Ly Van Tri                        | 61-8-9244-7661                                                   |
| 로드즈     | Ms. Lukaszewska Mariola             | 48-42-6860037<br>czakra@interia.pl                                                         | 시드니               | Mr. Eino Laidsaar                     | 61-2-9477-5459<br>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 ★ 포르투갈  |                                     |                                                                                            |                   | Mr. Hong Bo                           | 61-2-97887588<br>hongbo_huang@hotmail.com                        |
| 리스본     | Mr. Helder Hen Keon Kong            | 351-1-920-4118<br>lisbon_center@notmail.com                                                | 태즈메니아             | Mr. Carly skinner                     | 61-3-62282481<br>putters@bigpond.net.au                          |
| ★ 러시아   |                                     |                                                                                            | ★ 뉴질랜드            |                                       |                                                                  |
| 모스크바    | Mrs. Leera Gareyeva                 | 7-095-732-08-32<br>boulgakov@tri-el.ru                                                     | 오클랜드              | Mr. Kym Anton Toia                    | 649-419-4470<br>nzanton@yahoo.com                                |
| ★ 슬로베니아 |                                     |                                                                                            |                   | Mrs. Noelyne No Thi Ishibasi          | 649-277-9285<br>takahide@xtra.co.nz                              |
|         | Mr. Rastislav Alfonz Kovacic        | 386-35-814981<br>dbk@siol.net                                                              |                   | Mrs. Chanwu Wong                      | 649-5340986                                                      |
| ★ 스페인   |                                     |                                                                                            | 크라이스트처치           | Mr. Michael Lin                       | 643-3436918<br>chaomim@hotmail.com                               |
| 마드리드    | 센터                                  | 34-91-5470366                                                                              |                   | Mr. Glen Vincent Prime                | 647-849-4442<br>647-858-3355<br>hamnzcont@yahoo.co.nz            |
|         | Ms. Lidia Kong                      | 34-91-7756670                                                                              | 해밀턴               |                                       | 64-3-5391313<br>shale@ihug.co.nz                                 |
| 말라가     | Mr. Wang Ya-King                    | 34-95-2351521                                                                              |                   | Ms. Sharlene Lee                      | 64-3-5391313<br>shale@ihug.co.nz                                 |
| 발렌시아    |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 34-96-3336208                                                                              | 넬슨                | Ms. Joy Daniels                       | 647-544-5268                                                     |
|         | Vegetarian House                    | 34-96-3744361                                                                              |                   |                                       |                                                                  |
|         | Mr. Yu Xi-Qi                        | 34-96-3726401<br>valenciachinghai@yahoo.es                                                 | 타우랑가              |                                       |                                                                  |
| ★ 스웨덴   |                                     |                                                                                            |                   |                                       |                                                                  |
| 엔겔홀름    | Mrs. Luu Thi Dung                   | 46-431-26151<br>hang.nguyen@spray.se                                                       |                   |                                       |                                                                  |
| 오레      | Ms. Viveka Widlund                  | 46-647-32097<br>widlund@hem.utfors.se                                                      |                   |                                       |                                                                  |



# 2002년 천상의 보석전

## 위대한 우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보석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천상의 보석 팀들은 매우 특별한 천상의 보석들을 선정해 신의 진실한 사랑을 함께 나눴다. 스승님의 화려한 초창기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들은 단순하면서도 정교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며,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는 강렬한 이 작품들은 정교한 세공 기술로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각 작품마다 독특한 광채와 함께 다양한 영적의미가 담겨 있으며, 직장에서나 혹은 데이트, 파티석상 등 어디나 완벽하게 어울린다.

### S.M. 시리즈 - 시공을 초월한 무상사

스승님은 S.M. 로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S.M.은 무상사를(Supreme Master)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무상사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녹색의 옥과 선흥색의 산호가 대조를 이루는 S.M. 귀걸이는 금과 눈부신 다이아몬드와 대조를 이루며 고아한 동양풍으로 세팅되었다.



S.M. 펜던트(금, 또는 백금 도금)  
S.M. 귀걸이(산호, 옥)

8자 목걸이는 황금과 백금 두 가지의 색상이 있다. 8자를 옆으로 눕히면 수학에서 무한대(∞)의 뜻이 되며, “8”은 중국어로 발전의 발(發)과 발음이 비슷하다. 이는 신의 무한한 은총속에 우리의 비약적인 수행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목걸이는 모든 S.M. 펜던트와 놀라우리만큼 잘 어울린다.



최신 디자인 : '미레블' 펜던트  
'미레블' 귀걸이 - B

### 미레블 - 영성의 조류

1980년에 짝을 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문화적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정교하면서도 단순한 스타일이 디자인계를 선두적으로 이끌었다. '미레블'은 바로 이 스타일을 탄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목걸이에 달린 매력적인 단일 펜던트는 본래의 화려한 디자인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고품격과 정제된 듯한 우아한 느낌을 준다.

### 8자 목걸이

최신 디자인 - 8자 목걸이  
(금, 또는 백금 도금)



# 2002년 천상의 보석전

## 위대한 우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보석들



### 긍정의 승리

신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최신 디자인 : '긍정의 승리' 펜던트

'긍정의 승리' 귀걸이 - B

이 눈부시게 빛나는 천상의 보석 시리즈는 착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눈부시게 뽐어내게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 노란 토파즈가 한데 어울려 빛을 발하며, 신의 지혜와 광채속에서는 부정적 욕망(Z)은 발현하지 못하고 그 속에 동화됨을 상징한다.

### 등탑(燈塔)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불

최신 디자인 : "등탑" 펜던트(사파이어, 금/백금 도금)



햇불 모양을 한 '등탑'의 광채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수행의 길을 밝혀주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님을 상징한다. 우아하고 정교한 단일 펜던트로 디자인된 '등탑'은 정장이나 캐주얼 차림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



### 최고로 영광된 사랑

십자가형

최신 디자인 : '최고로 영광된 사랑' 펜던트

'최고로 영광된 사랑' 귀걸이 - B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씻었으며, 그의 희생 정신과 고귀한 성품은 시대를 통틀어 존경받고 있다. 이 새로운 십자가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의 숭고한 사랑을 나타낸다. 우리가 신의 권능을 믿는 한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최고로 영광된 사랑이 인류를 늘 감싸 안을 것이다.

Jewelry